朝鮮日報
夕刊
二十二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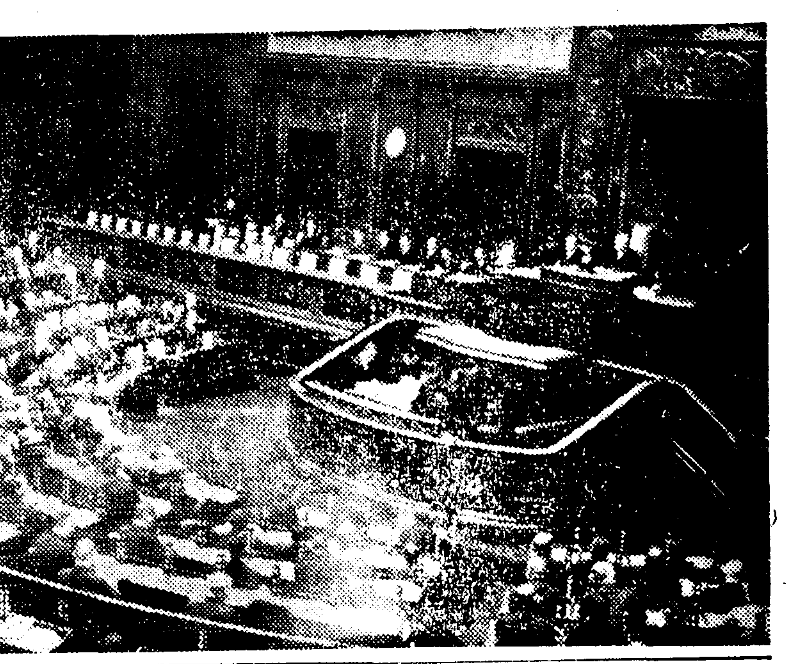
戰時議會今日再開

衆目注視의緊張裡에 各大臣國策披瀝

政府議員質疑應答戰展開

貴院本會議

【東京電話同盟】再開되는 重要 七十三議會再開의 貴族院本會議는 廿二日 午前十時十七分開會 傍聽席에도 거의滿員의 盛況을일우엇는데 그中에 크레기英大使가 貴賓席에 默然히잇는것이 注目을 惹起한다 離壇에는 近衛首相以下 各國務大臣이 緊張味를 가지고 列席, 諸般報告가잇슨後 松平議長에 案內되어 同十八分 近衛首相登壇 모닝으로 壇上에 이러서 草稿를 卓上에노코 別項과 가티 長期抗戰, 容共國民政府絕滅, 內政改革等 近衛內閣의 一般施政方針을 沈着한 態度로 堂堂하게 說明하매 議場은 一言一句도 漏泄치 안켓다고 傾聽하다 同二十八分 이어 廣田外相登壇 七十二議會以後의 帝國政府의 外交經過에 關하야 說明한後 抗日容共國民政府는 我國의 眞意를 理解치못하고 마츰내 今回의 支那事變이 發生케된 點으로부터 獨逸大使의 斡旋에依한 和平交涉經過에 關하야 述하고 各國과의 外交經過를 說明 二十分에 亘한 外交演說을 終了하엿다 이때杉山陸相이 發言을求하야 十時五十五分登壇 別項과가티 戰況槪要를 報告하며 各議員은 配布된 戰況地圖를 卓上에펼치고 陸相의說明을 傾聽하다 이어서 十一時六分米內海相登壇 支那沿岸航行遮斷으로부터 艦隊航空隊의 活躍狀況을 詳細히說明하고 最後로 米艦에對한 不祥事件에對하야 遺憾의意를表하고 十八分에 亘한報告를 終了하고 各大臣의 演說에對한質問에 드러가 同二十五分第一陣으로 三荒芳德伯(研究)登壇 政府는億 [illegible] 上議를 拜하고 [illegible] 하엿는데 現在敎育制度를 如何히改革하려 고하는지 또는今社會敎育을適當하게 하자면 아직學校敎育의 範疇를 脫出치못하고 또社會敎育의 範圍도 明白치못하다 諸外國의 社會敎育에 對한 條例를引例하야 今日의 我社會敎育으로서는滿足한成果는期待할수업다고 文相에質하다 木戶文相 社會敎育은 極히 重大하나 從來의 方法에는 不充分한것이잇다 따러 事變下의 社會敎育에對하야 充實振興을 圖하지안흐면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어리하야 同十一時四十分散會 (寫眞은 議會光景)



事變前途는遼遠

大業成就에勇躍邁進하라

首相施政方針演說

【東京電話同盟】二十二日再開議會劈頭에行한 近衛首相의施政方針演說內容은 左와如하다 事變下에新年을마지하야 重大時局에直面한 第七十三回帝國議會에臨하야 諸君과함께 聖壽萬歲와 皇室御繁榮을奉壽하고 茲에 政府의所信을 開陳할機會를 어든것은 余의光榮으로 역이는바이다 今期議會의 開院式에當하야 特히 優渥하옵신 勅語를下賜하옵시사 時局에對한 기프옵신 御軫念을拜하게된것은 實로恐懼感激不堪하는바이다 眞實로 [illegible] 日滿支의 牢固한 提携를 樞軸으로東亞永遠의 平和를確立하야써 世界平和에 貢獻함은 帝國不動의 國策이다 前般無反省한 支那國民政府에對하야 斷乎히이를 相對로하지안는方針을 採擇하게된것도 또列國과의 友好關係增進에 不斷한努力을 게을리 하지안는것도 모두 이國是의命하는바이다 特히昨秋防共의 理想을 가치하는 盟邦伊國을加하야 日獨伊三國間에防共協定이 成立된것은 世界平和를爲하야 眞實로 同慶不已이다 回顧컨대 事變勃發以來 半歲餘 戰線은北支로부터 中南支에미처 皇軍의勇武果敢한 行動으로 戰勝이連續하야 首都南京을 攻略한後 戰局이 極히 有利하게 展開하고잇다 어것은勿論 御稜威에 依하는바이나 皇軍將兵諸士의 忠勇과 銃後國民諸君의 熱誠의 發露로 진실로 感謝하여 마지안는다 바야흐로 政府는 帝國과 眞實로 提携할에 足한新興支那政權成立發展을 期待하고 이와兩國國交를 調整하야 東亞更生新支那의 建設에 協力하야써 東亞長久平和의 基礎를 確立하려는것이다 勿論帝國에 支那의領土와 主權及 支那에 잇는 列國의 正當한 權益을尊重할方針에는 秋毫도 變함이업다 생각컨대 東亞의安定勢力인帝國의使命은 더욱大하고 責任이 益益 重하게되엿다 이使命을다하고 任務를 다하기爲하야 今後에 잇서서도 多大한犧牲을 拂할決意가 必要한것은勿論이다 그러고 今日 이 決意를 하지안흐면 不幸을 將來에 남기는것이다 따러서 現在我等이 이 犧牲을 忍耐함은 바야흐로 我等이 後代 同胞에對한 崇高한 義務이라고 밋는다 政府는 如斯한 見解에 基하야 全力을다하야 支那事變에 對處하고 그目的達成에 邁進하려한다 이를爲하야서는 物心兩樣에 亘한 國家總動員體勢의 完成을圖하고 이에 必要한 諸般施策을 實現함이 必要하다 政府는 [illegible] 實로 提携하야 [illegible] 이 方針下에 먼저 軍備의 充實과 國際收支의 適合이 緊要하다고 밋고 財政經濟에 잇서서도 이 두가지에 重點을 두기로하겟다 昭和十三年度豫算案編成에 對하야는 事變이 長期에 亘할것을 豫想하고 物資及 資金을 [illegible] 할수잇는 [illegible]

內鮮一體를顯現코

時艱克服에邁進

南總督官民代表에激勵

聖戰第二年의 新春과 同時에 暴支抗日政權의 根絕을 期하야 長期戰時體制의 第二段階에드러간 重大時局에 處하야 마음내 擧國一致 帝國不退轉의 方針遂行에 半島全官民이 熱誠一打하야써 時艱克服에 邁進하려는 決意로 今廿二日 南總督이 官民代表를 總督府에 招致하고 그所信을 披瀝하야 一層强化케되는 時期이다 當日 南總督은 午前九時 登廳하야 土曜日에도 不拘하고 午前午後를 通하야五回에 亘하야自身官民各方面代表者에接하고 去十六日 中外에 闡明한 帝國의 重大聲明에 基하야 長時戰時體制에 邁進할 第二段決議를 發表하야 核心的 地位에잇는 內鮮一體의實을 益益强化할 時期이다 라는것을 展開하는것이 今回의 渡東에依하야 志願兵制度와學制改革等 半島施政에 一新紀元을劃할事項에 將次具現될 時期이라는것을 闡明하야 官民一致의 協力을求하고 또各道知事를 비롯하야 部下職員에 對하야特히 그實踐躬行的任務가 重大하다는것을 說明하야 이를全民衆에傳할것을 附加하엿다 卽

▲午前九時三十分 第二會議室에 本府局長官以上及 外局課長以上約百八十名이 參集하야 總督의 訓示를듯고 散會하엿다

▲午前十時부터는 第一會議室에 甘蔗京畿道知事以下十三道知事가 參集, 南總督은 特히 地方官民에 對하야 總督府施政의 方針을 [illegible] 時局의 再認識에 全力을 傾注할것을 要請하엿다

▲午前十一時半부터 在京中樞院參議三十五名과 第二會議室에 有力者三十名을 第二會議室에 招致하고 總督이 事變以來의 銃後活動에 感謝를表하는同時에 今後一層 [illegible]

▲午後一時半부터는 在京財界實業家有力者 三十一名을 同二十二名을 各其 第二會議室에 招致하고 協力一致, 銃後의結束强化에 對하야 總督自身의 信念을 傳하야 協力을求하고 一同은 三時半부터 總督府第一食堂에서 總督招待의 茶話會에 臨하야 時局에 對하야 懇談한後 散會하엿다

▲午後一時半부터는 在京新聞通信社代表 二十二名을 招致하고 第二會議室에서 總督招待午餐會에 臨한後 散會하엿다 또午前中의 會同者一同은 正午總督府第一食堂의 總督招待午餐會에 臨하엿다 後의協力을求하엿다

어리하야 會同者一同은 總督의 所信을 絕對支持하야 官民一致 內鮮一體를 顯現하고 帝國의 要求에 副할것을 誓約하엿다(寫眞은 南總督)

總督訓示要旨

南總督이 二十二日各道知事의 會同에際하야 今回會同을 通하야 半島의 重要事項의 一, 二, 三을 指示하야國家의 [illegible] 하는것은 [illegible]

是 國策遂行에 寄與할 責任을 須하기 爲함이라는 冒頭下에 지난十六日에 發한帝國의 對支態度를 敷衍說明한後

一, 時局의 持久化를 官民하야 一段認識하고 覺悟를 새로히할것

二, 統治目標는 半島의 日本化則內鮮一體의 具現에잇다 고力說하고 第二項에 對하여는 其具體化策으로 朝鮮人志願兵制度의實施 敎學刷新及 擴充에도 普及하고 特히 志願兵制度에對하야는 左와如히 說하엿다

此制度는 決코一部人士의要望을 運動에서 生하는것이아니다 歷代의御稜威와 先人의 努力及 半島民의 自覺修養에 依하야 바야흐로 其機運에到達하엿다 今回事變에際하야 半島에 서 湧出하는 自然的動機의形態에 잇서서 熱烈한 愛國心은 人을 感動케하고 天을感動케한다 卽 本制度의 實施는 [illegible] 생기지것이라고 할것이다

一層戰備擴充코

使命貫徹에誠心致力

杉山陸相演說要旨

【東京電話同盟】再開休會에서 杉山陸相이 行한 戰況說明要旨

昨年七月 支那에 對하야 膺懲의師를 派한以來 이미 六個月 其間河北에서 北支那軍에 大打擊을 與하야 北支에서는 黃河以北은 勿論이오 濟南一帶를 占領하야 바야흐로

▲北支方面

北支五省의 省城이 全部我手中에 歸하고 一方中支方面에서는 上海戰線突破以來 十二月十三日에 首都南京을 攻略하엿다 如斯히 南으로 北으로 我軍이 威武를 顯揚하고 着着戰果를 獲得하고잇는것은 오로지 大元帥陛下의 御稜威에依하시온바이나 또한 熱誠스러운 擧國一致의後援과 第一線將兵의 忠勇한게 착우다죽은 英靈의 加護에依하는바로 玆에 全陸軍의 名으로 深甚한感謝의 至誠을 呈하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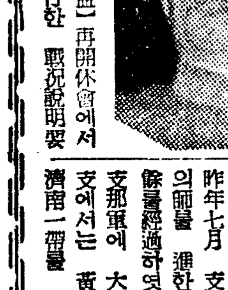
▲北支方面

南部察哈爾綏遠方面에서는 我軍은 有力한部隊로서張家口 同 綏遠 包頭一帶地區를 警備하고잇는데 漸次治安을 恢復하야 匪賊의 巢窟에 加함이 大槪事變前 과大差가업는 程度로 되고잇다 다만五原 河曲方面 黃河沿岸地區는 只今도아직 相當한敗敵이 殘存하고잇다 山西方面에서는 十一月九日 그省城太原을 占領한後 該地를中心으로하야 殘敵掃蕩에 努力하고잇는데 山西省의 西部及南部一帶의 地區에는 아직有力한 敗敵이 殘存하고 共產軍의 活動과 相俟하야 反撥의 氣勢를 示하고잇다 京漢線方面에서는 我軍은 石家莊 順德 彰德附近의 要地에 强大한部隊를 配置하고 占領地區內의 敗殘兵을 掃蕩하고잇는 同時에 近近道口鎭附近에잇는 敗敵과 對峙하고잇다 津浦線方面에서는 十二月下旬 黃河渡河를 敢行하야 同二十七日山東省의 省城濟南을 占領하고 뒤이어 南方及東方에 敗敵을 驅逐하고 南方에서는 그 第一線으로써 濟寧 鄒縣의 線을 占領하고 東方에서는 膠濟線에 沿하야 前進 靑島를 占領하고 海軍과 協力하야 同地一帶를 肅正中이다

▲中支方面

我軍은 昨年八月二十三日上海에上陸以來 堅固한 敵의 徹底的 打擊을與하고 杭州灣에 上陸한部隊와呼應하야 太湖南方의 地區에 잇는 敵陣地를 席捲하고 마침내 十二月十三日 首都南京을 攻略하야 城頭노피 日章旗를 飜揚하엿다 다음 杭州方面에 轉戰하야 十二月二十四日에는 同地를 占領하야 바야흐로 無湖杭州를 連繫한 東地區는 我軍手中에 歸하엿다 또我軍의 一部는 揚子江左岸地區에 進出하야 津浦線에 沿하야 蕪湖附近의 地區를 占領하고 爾後의 作戰을 準備中이다

그런데 國民政府는 아직帝國의 眞意를 解치못하고 抗戰을策하야 南京攻略後 一個月을 經過하엿음에 不拘코 依然軍隊再編成에 努力하야 長期抗戰을 高唱하며 조금도 反省의 誠意를 示하지안어 따



東亞의禍因芟除코

平和建設에邁進

廣田外相의演說要旨

【東京電話同盟】今次事變에 對한 帝國政府의 態度는 累次에 亘한 政府所信의 披瀝에 依하야 明白한 바이다 帝國政府는 支那에 對하야 何等領土的野心을 가지지안코 또 北支를 支那로부터 分離시키려는것도 아니다 卽 帝國이 要求하는바는 支那가 大局에 覺醒하야 日支提携 共存共榮의 理想에 協力하는데 잇는것이다 따러서 事變勃發後에 잇서서도 帝國의 理想에 協力할 誠意를 披瀝하야서나 또는 東亞大局을 爲하야 自暴自棄的 抵抗을 繼續하고 잇다 如斯한것은 支那民衆을 爲하야 悲慘한結果를 招來하는것이 아니치 못하게되엿스나 아직自覺함이 업시 또는 東亞大局을 爲하야 國民政府는 首都南京을 抛棄하고 漢口로 遁走하야 四億民衆을 塗炭의 苦에 投하야 反省함이 업다 하야 바야흐로 帝國의 忠勇한 軍隊가 北으로 南으로 事態推移한 結果 國民政府는 首都南京을 抛棄하고 四億民衆을 塗炭의 苦에 投하며 長期抵抗을 唱道하야 只今도아직 長期抵抗을 唱道하고 容共抗日의 政策을 拋하야 帝國의 大局을 顧念하는 [illegible] 日方針에 依하야 自國自國에 陷入하야 冷靜히 大局을 顧念하야 年間 스스로 鼓吹하여온 排日抗日의 帝國의 眞意를 理解치못하고 多年間 그런데 國民政府는 러는것이다 하야 東亞의 平和確立에 邁進하 하야 帝國은 이와提携 러 日支兩國間에 直接交涉의 仲介의 勞를 取한다는 好意的 申請에 接하엿스므로 國民政府에 最後的反省을 與하기爲하야 事變解決의 基礎條件으로 次의 四點을 提示한것이다

一, 支那는 容共抗日滿政策을 放棄하고 日滿兩國의 防共政策에 協力할 것

二, 所要地域에 非武裝地帶를 設置하고 또 該地方에 特殊한 機構를 設置할것

三, 日滿支三國間에 密接한 經濟協定을 締結할것

四, 支那는 帝國에 對하야 所要의 賠償을 할것

右는 모두 帝國政府가 絕對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最低限度의 要求를 概括한것으로 余는 國民政府가 速히 이基礎條件에 依하야 和를 求하여올것을 切望하고 잇섯스나 東亞의 大局에 覺醒하

[illegible] 러 回答하지안코 事態는 不拘하고 今後國民政府 에서 何等誠意 있는 回答을 하지 안타 [illegible] 取하지안코 이 如何한 妥協 이라도 [illegible] 此際 如此한 國民政府를 相對로 하지 아니하고 新興支那政權의 成立發展을 期待하야 이와 兩國國交를 調整하야 更生新支那의 建設에 協力하기로 決定한 것이다

余는 이것이 帝國의 理想으로 日支提携에 依한 東亞의 安 [illegible]

바야흐로 政府는 帝國과 眞實로 提携할수잇는 新興支那政權의 成立發展을 期待하고이와兩國의 國交를 調整하야 更生新支那의 建設에 協力할決心이다

그러나 蘇聯政府에서는 現行條約을 修正할協定을 締結함에 必要한 國際的 考慮를 進行하고잇스나 그 [illegible]

[illegible] 英國과의 關係에對하야는 帝國政府는 從來의 傳統的 友誼에 依하야 日英兩國의 關係를 維持하려는 것에 何等 變함이업다 余는 英國과의 關係에 對하야 勿論 國民에잇서서도 日英關係의 重大性에 鑑하야 充分히 理解를 가지고 東亞에 있는 帝國의 立場을 正解하고 我方과 協力하야 兩國의 親善增進에 努力할것을 期待하는 바이다

日米關係에 就하야는 今次事變에 際하야 米國政府는 恒常公正한 態度를 持하야 잘日米大局을 顧念하고 파네이號事件과 가튼 不祥 事件突發에도 不拘하고 兩國의 友好關係에 何等 累를 미치게 하지안한것은 余가 欣幸으로 역이는 바이다 今後에도 日米親善을 爲하야 努力하고저 한다

本年佛蘇兩國의 [illegible] 佛國과의 關係에 就하야는 帝國은 佛國과 其他 諸國과의 友好關係 增進을 爲하야 努力하고잇다

伊國과의 關係는 多年의 友好的 關係로부터 一層 親密을 加하야 昨年 十一月 伊國이 防共協定에 參加함에 이르러 日獨伊 三國의 提携는 一層 强化되엇다 伊太利는 昨年十一月에 正式承認을 하고 다음 十二月에 이르러 西班牙 프랑코將軍의 政府를 正式承認한 것은 同慶하여 마지안는다

蘇聯邦과의 關係에 對하야는 國際共產黨이 支那에 잠입하야 [illegible] 하고 있는 것은 帝國 [illegible]

滿洲國에 對하야는 [illegible] 또 今次事變에 際하야 滿洲國이 取한 態度는 [illegible]

極東事態에備해

米布哇根據地를强化

【하와이로드=加州=二十一日發同盟】米國政府는 極東事態發展化에適應하야 布哇根據地의 防備强化에 [illegible] 하고잇는데 近近하와이로 가게되엇다 米陸軍爆擊機中隊를 布哇로 移駐시키기로 決定한 것을 二十一日하와이로드陸軍當局이 發表하엿다

右爆擊機中隊는 隊長以下少佐以下五十二名 兵員百八十名을 將校 下官三十名으로 來二月一日運送船으로 出發한다는 報道이다

英建造說探索

【倫敦二十一日同盟】 我日 크레기駐日大使에게 二十一日東京電報는 『日本海軍當局은 日本이 華府條約에 規定된 制限을 超過한 大型戰艦을 現在建造中 或은 建造計畫中이라는 報道에 [illegible] 充分理解시키기까지는 되지못하엿다 그러나 英國當局은 四萬二千噸級의 戰鬪艦建造說을 否定하엿다는 報道는 新聞報道에 依하야 알고잇슴 政府로서 크레기大使에게 詳細한 報告를 하야 [illegible] 海軍當局이 四萬二千噸級主力艦建造說을 否定하엿다는 新聞報道에 依하야 英外務省은 二十一日午後記者團과 會見하고 英米佛三國間의 協議開始를 示唆하엿다

藤山部隊殘敵掃蕩

【杭州二十一日發同盟】藤山部隊를 主力으로하는 討伐隊는 二十日朝杭州를出發하야 杭州富陽間의 山岳地帶에 蟠居한 敵에 對하야 徹底的 掃蕩戰을 開始하야 二十一日朝까지 附近要所를 占據하고 包圍隊形을 取하면서 敵을壓迫하고잇다

情勢가 前述한바와가티 事變의 前途는 益益遼遠하다 또國際情勢는 豫斷을不許하는바잇서 帝國政府는 그使命이 더욱 重함을 感하게되엿다 此際一層 戰備를 擴充하야 至誠御奉公의 誠을다하야 大元帥陛下의 御宸襟을 奉安케하고 全國民의 御期待에 副할것을 期하는바이다

海蔘威赤色艦隊

太平洋制覇指目

蘇聯太平洋艦隊의 建造에 依하면 近年의 海蔘威의 防備 및 [illegible] 大西洋艦隊 [illegible] 一九三七年度에는 [illegible]

英國埠頭人夫

對日鋼積入拒否

【미들레스브러二十一日發同盟】英國미들레스브러港埠頭人夫는 二十一日郵船榛名丸에 對하야 鐵鋼積入을 拒否하야 反日氣勢를 高하엿다 右는 『極東에잇서서의 日本軍의 橫暴』에 抗議하기爲함이라고 하고잇스나 勞働組合側은 埠頭人夫의 積入拒否는 組合의 承認을 어든것이아니오 오로지 獨斷的 行動이라고 言明하엿다

時事解說

主力艦建造條項

列國의 海軍軍備 [illegible] 에따라 一九三六年三月 二十三日 倫敦에서 調印된 英米佛 三國海軍條約의 [illegible] 條項停止問題가 [illegible] 招致하게되엿다 卽 最近 英米佛 三國政府에 依하야 一, 二 [illegible] 主力艦建造制限條項의 [illegible] 바야흐로 [illegible] 보게되엿다」고 報道하야 [illegible]

◇

一九三六年 倫敦海軍條約은 日本의 脫退와 伊太利의 不參加로 [illegible] 英米佛三國間에 締結된 條約이다 [illegible] 三, 安全保障條項 二, 質的制限條項 三部로 되어 [illegible]

◇

卽 「主力艦은 三萬五千噸을 超過하는 主力艦은 [illegible] 不得하고 [illegible] 四萬噸 [illegible] 하엿다

◇

그러나 英米의 [illegible] 一九三七年 一月一日以前에 [illegible] 一九四〇年 [illegible]

八面鋒

◇戰時下의 七三議會 今日早터 再開。

◇二十八億의 一般豫算 四十餘億을 肉迫하는 軍事豫算이 無難通過될것은 豫想키不難하며、

◇電力管理案 增稅案도 多少論難은 잇을지나 通過는 거이確實。

◇政府案그대로를 通으로 삼키는 政友 民政 存在意義가 무어이며 兩立할 必要는 무엇이냐라는 말도 남지 모를 낫。

◇이것이 傳統이오、現實인 以上 반듯이 合할수도 업는일。

◇今年度米實收高 第一回豫想보다 四十餘萬石增收。

◇今年부터 都會地에는 選擧의 二部制를 쓴다고。

◇못배우는 사람을 업세는 政策은 當然 且 可。

◇그러나 敎員의 不足 兒童의 苦痛이 佳할것은 不論當事者의 實。

◇하로바삐 學校增設 敎員養成이 必要。

우리語文의 '經典' 出版

朝鮮文字及語學史出版

金允經氏의 近二十年間苦心의 結晶

朝鮮記念出版館 첫事業

(김윤경씨)

조선문화의 새로운 빛이운이 번에새로히 조선문자급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라는 조선어와게의 글자탐지저술이 우리 어떠케 의기숙김윤경(金允經)씨에 의하야 세상에 나왓다 김윤경씨는 지금까지 이십여년간 전생애를 기울려 우리말연구에 골무하고잇든 훌륭한 학자로 씨의어학에는 한계에서 널리 기대하고 잇는터에 지금까지의 연구의총결산으로 국판(著版)되어오게되지나 되는 방대한 저술을 내노케 되엿다 실로 우리학계에새 문운정진에공헌이잇는데 내용은 제일편을 서론으로하야 언어의본질로부터 시작하야 조선어의변위 문자의발생과정을 력사적으로 론하고 제이편을 봄으로하야 훈민정음(訓民正音)창제이전의문짜로부터 유린정의자세한 해부와 그발전을 기록하야 우리의어문을 연구하는 초비자에게도 큰지도적 저술일뿐아니라 전문가에게는 각방면의 학술을 체계잇게탐빌른 평한점으로서 연구의참고가 크게될것이다 그리고 이책의 출판은 조선기념도서출판관(朝鮮記念圖書出版館)에서첫 것인데 사업에 각개인의 기념할 되엿고 그취지가 김윤경씨에 문화이 엇는사람으로써 어업에 낭비되는비용을 약하야 출판에이바지 하는데 하자는것이다 이번에 시내리인(李仁)씨가그 부모의 회갑을기념하야 출판비를 부담하엿스므로 출판된 서적은 사회일반에게 렴가로 판매하여 그대의 판권은 저술자의 소유로 하야 다시일반에게 판매되엿는데 이번의 출판은 동출판사의 첫사업으로 성부 회동정(花洞町)일백이 십구번지 조선어학회에잇 다 이러한사업이 널리보급 되어 조선문화를 위하야 큰 운동이 될것이기대되고잇다

揮發油節約을主眼

全朝鮮自動車線路를大整理

競爭線不緊線은一齊休止

택시는全部메ー터制로!

상공성(商工省)의 연료국책(燃料國策)의 방침에 따라 조선에도『까솔링』을 절약할방법을강구하고저 지난 이십일에 신산국에서 관계자의 회합이잇섯는데 조선의 그소비량은 작년에는 십이만키로릿틀이고 금년에는 십삼만키로릿틀가량으로 예상되므로 이가운데서 사십파센트를 절약하라는 배당(配當)의 지시가 잇섯스므로 까솔링의 만히 사용하고잇는 교통관계의 사업을 감축하고잇는 철도국에서는 철도및자동차의 경영운전에 관하야 대략 다음과가튼 방침으로 그절약의 목적을 달하기로되엿다 그래서 이십이일에철도국수뇌부와 각사설철도의 수뇌자를회합하야 협의한바잇섯다 ▲국유철도나 사설철도에병행선(並行線)이되는 자동차교통사업의 면허(免許)와 운전도수(運轉度數)의증가는 소극책(消極策)을 취할것 ▲로면전차(路面電車)와 자동차교통사업의 경영은 합동통합의 방침을 취하게하야 운전도수의 절약을도모할것 ▲자동차와 자동차와의 병행로선(並行路線)은 한쪽은 휴지(休止)시킬것 ▲병행운전구간(區間)이외에동일지방의 군소사업(群小事業)은 합동경영으로써 합리화(合理化)시키기로하되 이것은 특히회합자동차사업에대하야 강구할것 ▲각로선의 교통량(交通量)에 응한운전도수 운전계통 적용차량(適應車輛) 적용차종(車種)에대하야 강구할것 ▲교통한산한 단구간은 지장이업다고인정되는 자동차선로는 운전을 휴지시킬것 ▲『택시』는 전조선적으로 『메ー터』제도를 실시하게할것 등이 다 그러고 휴지시킬자동차의 로선은간에발표하게될터이라한다

二萬圓列車怪盜에

民事로賠償請求

原告는被害側인鐵道局長

犯人은尙今도取調中

지난소화오년시월칠일 경의선렬차중에서 발생된 식산은행탈송금 이만원대도난사건의 진범인은 지난십이월 이십삼일 경기도경찰부 형사과에서 유명한협의자로 성진부북정(城津府北町) 삼백팔십삼번지 성진렬차구차장 김봉암(金鳳岩)을 검거취조한결과 그의입으로 자백을바더 드듸여 사건발생이래 만칠년이개월만에 미궁에 들어온이사건은 해결을 지엇다함은 이미 보한바이어니와 이사건은 미루보한바이다 이사건은 미결에 걸리고 다만민사사건으로는 시효(時效)에 걸리고 다만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문제가 일어낫으므로 예상되든바 이십이일 파연피해자인 대표자 조선총독부철도국장 길전호(吉田浩)씨는 상정(桑井)변호사를대리인으로하야 전기 김봉암의친구부내 남미창정(南米倉町)사십팔번지전과순(田果淳) 두명을 상대로 김봉암은 소화오년 시월칠일부터 변제할때까지 이만원에 년오분의 리식을 부처서 반환하라는 손해배상청구와 전과순은 김봉암에게서 장(訴狀)송달일부터 년오분의리식을부처서 반환하라는 소송을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하엿는데 그소장을 보면다음과 갓다 김봉암은 검거될때까지 철도국고원으로 성진렬차구의차장으로 근무하엿던바 그년동안 철도국 경의선천사조정 그성명의 천사백원의 오년오분의 이리로 정한 그의 이익으로 원소 ... 의명의로 서리를피하야 한남대부 차호(漢湖)에 은닉중장을시설하야 현재약이만칠천사백오십원가량의 재산을 가지고잇다 그러나 김봉암에게는 불법행위(不法行爲)의 손해배상으로 전기한바와 가티 이만원에소화오년 시월부터 변제할때까지 년오분의 리식을부처 배상하고 전과순에게는 김봉암에 대위(代位)하야 전기신탁행위를 해제하야 김에게 전기한바와가티 이만칠천삼백오십원에 소장송달일의 익일부터 년오분의 리식을부처서 반환케 하여달란것이다 사건이 미궁에들어간사건이고 또 형사사건으로는 시효까지 걸린 사건이니만큼 장차어떠한 판결이내리게될지 자못 일반의 주목을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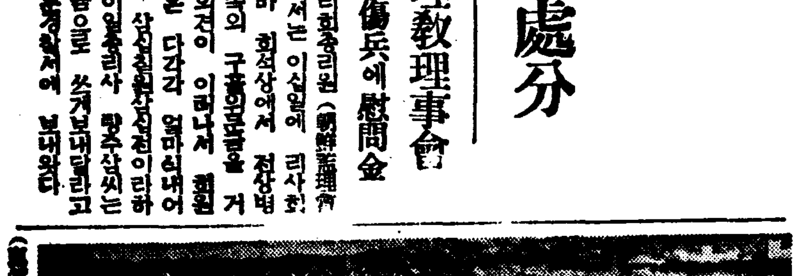
破戒僧邪敎挾雜

二萬餘圓을騙取

被害者中엔貴族과敎授까지

龍山署에서逮捕코取調中

사교(邪敎)를 빙자하고 혹약(惑藥)과 백백교(白白敎)등 대사건이발생한이래 세상에크게문제를 던지고 경찰의신경을 바늘가티해민케하고잇는이때에 또다시 종교를빙자하고 모대학교수를 비롯하여 귀족부호등이며 심지어배우들에게서까지 금전을 편취하여 그사기금액이 수만원에까지 이르게된 희유의 대사기사건이 이잇다 [...] 원적을 인천부내리(仁川府內里)一五〇번지이고 주소를 부내 천연정(天然町)에 둔 중 선학(禪學)을 수업하고 여러 학교(學校)에 통학하고 역외(易學)과천 사업가는 ...


(사진은 同大會入場式光景)

支那로復歸者에

朝鮮서도車賃을割引

但外務省證明書所持者에게

汽船運賃도交涉中

지나(支那)사변 발발이래고향으로 철귀하얏든내선인들이 다시나로 도라가는경우에 내지에서는 기차 기선임금을 할인하기로되엿는데 이에 호응하야 총독부 철도국에서도 기차임금을 오할인하야 취급하기로 결정하얏고 도지나행경기관(?)가잇는 기선회사에 대하야는 방금 기선임금 할인을교섭중인데 기간은 금년삼월까지로 하얏다 그런데 이지나복귀자(復歸者)는 외무성(外務省)발행의증명서를 휴대하여야된다

防空講習會

二月初旬에三日間開催

총독부에서는 조선방공사무의관계로서 오는이월초순에 삼일간방공강습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 최하기로되엿는데 각도에서는방공부담자 두명(경무과한명 지방과한명)이 출석하기로되엿다

奉明學院에

援助를期待

시흥군 동면 봉천리(奉天里)는 백여호에 백이십여명의 학령아동을 가지고잇스면서도 시흥(始興)과 과천(果川)이 이십여리나 먼곳에잇는관계로 취학하지못하고잇는 아동이 그팔할이상이어서 주민들이 항상 초등정도의 교육기관이 설립되기를 바라고잇든바 지금으로부터 사년전 동리유지최흥섭 최현섭 김규여(金圭如)제씨들과 송씨(宋氏?) 김씨의 노력으로 초 ...

總督訓示主旨를

各管下에徹底케

이십이일 지방지사회동(衆會知事會同)에서 남총독(南總督)으로부터 제국의 현정국(現下國策) 의 외교와 전쟁지구(戰爭地區)과 오외교와 내선일체(內鮮一體)와 의 강화에 기하여 특히 상영한 시국지사회동(地方施策)에 관하여 종합한 시정방침을 훈시하얏는데 각도지사는 통일로 도지사는구비하여 각시 군의 회의에 결정한것을 도지사들이 주최하야 각군 수 ...국의 휴지의 부국 ...의 군수들은 도회를 지역마다 조직하기로 되엿다 여 그외에 여러가지방법을 총 국의 휴지취지를 철저하기에 진력을 다하기로되엿다

青林彌勒敎事件

三名起訴豫審에

五名은不起訴處分

【大邱】 남조선일대를 근거지로 천여명 일반농민의 고혈을 착취하고 백여명부녀자의 정조를 유린한청림미륵교(靑林彌勒敎)의 교주손해수(孫海珠)외 여덟명은 지난십이월 일건서류와함께 대구지방법원검사국(大邱地方法院檢事局)에 송국되어 전야검사(前野檢事)의손으로 취조중이든바 검사의 취조는 이십일일에 끗난듯 다음의세명만 기소되어 예심에회부되고 남은여섯명은 불기소가 되엿다한다

▲孫海珠 詐欺 保安法違反 ▲金仙東 詐欺 保安法違反 ▲崔永福 詐欺 保安法違反

▲起訴猶豫 [...] 不起訴 ...

龍泉在住支那人

五色旗를揭揚

【龍泉】 경북예천읍에 거주하는 시정부 지나인 왕중립씨(王中立)는 그전부터 이번사변 이래 일본군과 행동에 협조하기 위하야 지난이 구일전 영락방면시에 오색기와 일장기를 게양하고 애국(愛國)운동에 헌납하야 [...] 本(中東樓)에서 전상병문위 차로 이십이원을 내엇다한다

監理敎理事會

戰傷兵에慰問金

조선감리회중앙리원(朝鮮監理會)에서는 이십일 정동 회의상에서 전상병위문금을 거출하기로 되엿다 이상결정한 구휼금은 국방헌금으로 쓰게되엿다한다 그각부 이상이 보관된다 ...

殺人女逐局

질쿨와 원한의 불길을 견잡을수업서 신념부두 서울의 새불을 피로불드린 원천(元川) 살인사건의 주인공 강봉순자(姜鳳順) 하여 그 사기금액이 ...

大阪在留朝鮮人도

志願兵志願逕至

提燈行列까지擧行

총독부에서는 대판(大阪)재류조선인으로부터 지난 이십일에 조선의 지원제도를 열렬 희망하는 지원서가 여러번 들어왔는데 그중에는 대판재판을 하고 대판 大阪에 대한희망 등을 선서하고 ...

移住農民農牛難

滿洲現地서는購入不能으로

朝鮮서輸送을斡旋

仁川商工會議所의

新年度豫算審議

【仁川】 인천 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이십이일 오후 네시부터 역원회를열고 소화십삼년도 예산에대하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얏스며 이상 이일오일에 개최하는 총회에 상정하기로 되엿다한다

天氣豫報

槪況 대륙고기압(大陸高氣壓)은 뚜렷하게 七八四粍을보이고 그고적으로부터 東滿洲 朝鮮及本州方面에 이르고 잇다 南朝鮮은 남세가조하고 취위는심하다 南朝鮮은 晴하고 조선을 넘어 ...

度로나리엿다 日本海方面은비가오고 東北地方及北海道는눈이오고 太平洋方面은 흐리고 잇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 개엿다잠깐흐리며 京畿 金黃道 以上과같다

昨日最高 零下〇度二 同最低 零下十度九 今朝最低 零下十四度八 今日正午 零下八度七

五千、萬米에記錄更新

徽文李明天君優勝

江界의金君을斷然壓倒코

綜合競技氷上大會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八回全朝鮮綜合競技氷上大會는 二十二日午前十一時三十分부터 淸凉里링크에서열리엇다 參加選手二十九名의 入場式이잇서 大會副會長 金圭冕氏의 開會辭가 잇섯고 選手一同을代表하야 白狗의 金容義君이 皇國臣民의 誓詞와 宣誓文을 朗讀한後 審判長 韓鎔熙氏로부터 競技進行에 對한 注意說明이끗나자 五百米타임레ー스로부터 開始되엿는데 오는二十日鴨綠江銀盤우에서열리는 朝鮮對滿洲氷上對抗戰에 出場할 朝鮮代表五名을 選拔하는터이라 諸選手들의 意氣는 絶頂에達하야 明朗부터 接戰이 展開되엿다 이날氣溫은 零下七度 快晴한하늘아래 微風이불어 絶好한것이드니 競技方法은 綜合選手權順位로 第五位까지를 決定하기로되엿다 五千米레ー스에는白狗 李明天君과 江界 金河吉君이 一大接戰을 演하드니 李君이 가슴하나를쭛거의同着從來記錄 九分四十七秒五를 一秒五나 短縮한 九分〇六秒로 第一位를 占하엿스며 金君은아깝게도 第二位를 차지하엿다 이리하야 白狗 李明天君은 個人綜合點에 잇서서도斷然優勝하엿다 이날의一大收穫은 李明天君의 五千米에九分八秒인데 이記錄은 今年二月에서八斤市에서지은 張禧植君의 九分〇一秒五에 比하야 五秒五나 빠르다

【五百米】(셰파레ー트·코ー스)(二十九名出場으로 十五組에나누어競技)

1 石龍元(徽專)四九秒四
2 李明天(徽文)四九秒七
3 金漢榮(咸興)五一秒
(以上大會新記錄)
4 金容義(白狗)五一秒三
5 張鶴榮(白狗)五一秒四

【五千米】(오픈·코ー스)(二十八名出場으로 二組에나누어 競技)

1 李明天(徽文)九分〇六秒
2 金河吉(江界)九分〇六秒
3 金漢榮(咸興)九分〇七秒
4 朴佐用(白狗)九分三四秒
5 柱善鎬(新義州)九分三六秒八
6 金容義(白狗)九分四二秒八
(以上大會新記錄)

【千五百米】(셰파레ー트·코ー스)(出場選手十五名으로 七組에 나누어競技)

1 李明天(徽文)二分四一秒七
2 金河吉(江界)二分四三秒
3 金漢榮(咸興)二分四三秒八
4 石龍元(徽專)二分四六秒
5 金容義(白狗)二分四七秒四

【一萬米】(오픈·코ー스)(十名出場으로 一組에行함)

1 金漢榮(咸興)一九分四九秒
2 李明天(徽文)一九分四九秒一
3 金河吉(江界)一九分四九秒一
4 張鶴榮(白狗)一九分五二秒一
5 柱善鎬(新義州)一九分五二秒三
6 金容義(白狗)一九分五二秒四
(以上大會新記錄)

【二千米릴레ー】 白狗일(金容義, 張鶴榮, 金永河, 李明天) 三分二秒四(獨走)大會新記錄

◇綜合選手權順位

1 李明天(徽文)二一七·一一五
2 金河吉(江界)二一九·三四八
3 金漢榮(咸興)二二〇·一二〇
4 金容義(白狗)二二五·〇〇〇
5 朴佐用(白狗)二二六·〇三一
6 張鶴榮(白狗)二二八·三三五

京平中等籠球에

中東軍惜敗

樂實40 (22|18 / 15|12) 27中東

同日午後八時四十九分부터 金昌東 ... 學校 ...

新築落成·入院室完備
泌尿科 淋疾 婦人病科 專門
杏林堂医院
平壤府蒔別里三一八
電話一八六七番

全朝鮮學校一覽 最新版 定價六十錢
受驗生諸君의入學試驗과學校選擇에絕對必要한『昨年度京城各高等普通學校、高等專門學校其他重要한學校의志願者數、統計表、試驗問題』를一冊에收錄、入學하기어려운各學校入學試驗準備에參考資料가될것이올시다 振替京城二七九八〇番으로先金送付하시면 ...
發行所 京城府通義町九一 朝鮮教育社 振替京城二七九八〇番

小資本工業案內
小資二三十錢切送하시면日本大成功에關한化粧品一切洗濯石鹼各種日用品을一二人能히製造할수잇는工業案內書를送呈 京城府長沙町二九 (原料商) 泰昌工業所

(農林省副業課奬勵)
大成功 軍手의製造
至急 製造家及代理店募集 月收入六拾圓以上百圓確實
軍手는季節업는實用品으로 販路는世界的益益安大한바더구나非常時局에하야軍手의需要는益益增加되고國內製品은大不足狀態이므로 弊社는時代에順應하야本社特製最優良機 高速度能率機의 特賣期間을 一月末日까지延期하고 五十臺限하야 特價提供하압고製品은永久히一手引受하오며 原料는實費로配給하압고製造方法은無料敎授하오니 專業又는副業으로希望하시는이는至急申込하시옵 實切된기前에爭先申込하심을大望하나이다
案內書進呈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十九番地
合資會社 豊國軍手京城營業所 振替京城二三五九〇番

外科 肛門病科
入院室全部溫突設備
京城府樂園町一三五
醫學博士 朴昌薰
電光一四五二
包莖手術每日施行

家庭用藥高品質 松澤ホーサン石鹼

京城鍾路青年會館下層
光學堂眼鏡部
電光 二一二八九 主任 曺秉學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社
一一九

婦人無視絶對不可

全朝鮮 一千萬 婦人이여 覺醒하자

一千萬男子에게 嚴重抗議하자

男性의이罪惡을如何히處置할까

一、女子의赤白帶下 惡臭 冷症 腰痛 月經不調 姙娠不能 早老不感症 淋毒性、梅毒性及生産兒의胎毒 어지러운症等 모든子宮病惡疾이全部 男子의 不品行으로因하야 家庭婦人에게준것이아니고 무엇입니까

二、婦人들 十中八九까지는 冷症이니 帶下症이니 반듯이 무슨子宮病 이잇는것은 가리울내야 가리울수업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男便은 婦人에 對하야 그治療를 等閑히하니

新發賣 最高貴藥

調經胞胎・補血强壯

婦人百補丸

代々孫孫・鉄血子女

●婦人無視는絶對不可함니다

朝鮮一千萬婦人病一掃를爲하야이를嚴重抗議하자는바입니다 婦人에病이잇스면夫婦不和하고家庭不平하고代代孫孫이不健康한子女가出生되고乃至家庭經濟살임사리까지不經濟不規則하는等百가지弊害와損失이엿습니다

全朝鮮家家戶戶婦人百補丸一劑式쓰자

그리고 男子도 今日부터 탈線말고 謹신하자

그리하야조흔血統을만들자平和단樂한家庭을만들자

어머니와 임신부인께

一・이藥을임신한 婦人이쓰면 母體와 胎兒가 튼튼하게되여 健康한子女를 낫케되며

二・어린애잇는 産母가쓰면 젓이잘나고 애기에 영양발육이 잘되며

三・産後에이약을쓰면 産後衰弱症세가 速히회 복되여 元氣와피를 보하게됩니다

◀婦人百補丸한劑를쓰면男便에게 順從하고親切하고 沈着하게됩니다 그理由는 卵巢子宮異狀이一切全部完治되고 心身이完全한女性體質이되니까닭임니다

吾妻를사랑하고 家庭과 子女를사랑하는 男子는爲先婦人에게 이藥一劑를사드리시요

多病한婦人・無子한婦人의 最高貴漢方靈藥

婦人百補丸發賣開始

生男生女天下待望의 世界的 婦人名藥

○부인이 경도가 고르지못하거나 냉병과 대하증이잇거나 귀여운자녀를 낫치못하거나 부부의애정조차 모르게되는것은 모다난소홀몬이부족한까닭입니다

○『부인백보환』은 다수한 부인科의학박사가실험증명한 난소홀몬제를 비롯하야 자궁을보하고 혈분을 보하고월경을고르게하는성분이 완전히가입배합되여잇슴으로

○이약를쓰면 경도가 고르고 자궁이더워지고 혈색과 안색이 조와지며 모든부인병과 허약증세가 업서지고 튼튼한몸으로 포태생남케됩니다 特히 이부인백보환에가입된난소홀몬은 부인에게는 업서서안될 特別한홀몬임으로

思春期의處女가 복용하면 유방이불너지고 자궁발육이속진되며

更年期의老婦人이 쓰면 中止되엿든월경이 다시 게속되여 쇠하고 고갈되엇든 난소、나팔관등 자궁의모든 기관이 윤활한작용을 다시 시작하야 二三十세시절을 생각케되는신묘한약입니다

모든부인병으로인하야 남모르게 신음하는부인이나 귀여운자녀가 업서서 고적하게 지내는부인은 쓰시요

淋疾잇는男便을가진부인은 즉시 이부인백보환을 쓰시요 淋疾等으로 因하야 生하는 子宮內막의 各種病이 特別히잘낫습니다

老婦人 生男

斷産한지 十年지난 四十七歲의 老婦人이쓰고 胞胎하야 玉童子를 解産한等의 實例가 만흔 藥材올시다

主治効能

經度不調、月經困難、月經過多、子宮出血、子宮虛冷、手足厥冷、食慾不振、氣血俱虛、顔面蒼白、虛弱消瘦、精神憂鬱、眩暈、히스테리、疲勞倦怠、全身虛弱、卵巢홀몬不足에依한 神經衰弱及不眠症、乳汁分泌不足及缺乏、赤白帶下症에依한 惡臭、女子淋疾、消渴、膣カタル、便秘

062494

婦人百補丸을 쓰면 이러케됩니다

●子宮과 內部가 불갓치 더워저서 爲先 冷症이全部업서지고 無子한 婦人도胞胎하게됩니다
●赤帶下 白帶下 黃帶下가 업서집니다
●淋疾及雜菌이 업서지고 子宮惡臭가업서집니다
●飮食消化도 잘되고 便秘症이업서집니다
●姙娠中에 이약을쓰면 健康한子女를 出生함
●月經을 二十日만에도 하고 五十日만에도하야 月經日이 一定치안은분
●月經色이 鮮明치못한분
●恒常몸이 압흐고 感氣가 자즈신분
●두통 상기 현기나는분
●월경이 아주업스신분
●월경이외에 피가나오난 婦人
●대하증이 곳치지안는분
●아래와 수족이 냉한분
●허리와 아래배가압흔분
●가슴이 저리고 숨찬분
●국부가 가렵고 오줌이자즌분
●산전산후 쇠약한분
●젓이 잘안나는분
●부부화합의 자미를 모르는분
●건강하야 보이고도 어이못낫는분
●기혈이 부족하고 안색어 창백하고 잠잘못자는분
●소화가 잘안되고 체적이 오르내리난분

藥價 一劑七圓

無料進呈 三人共同注文을周旋하시는분에게는一劑를無料進呈합니다

京城堅志町五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振替五番 電話三三〇番・六三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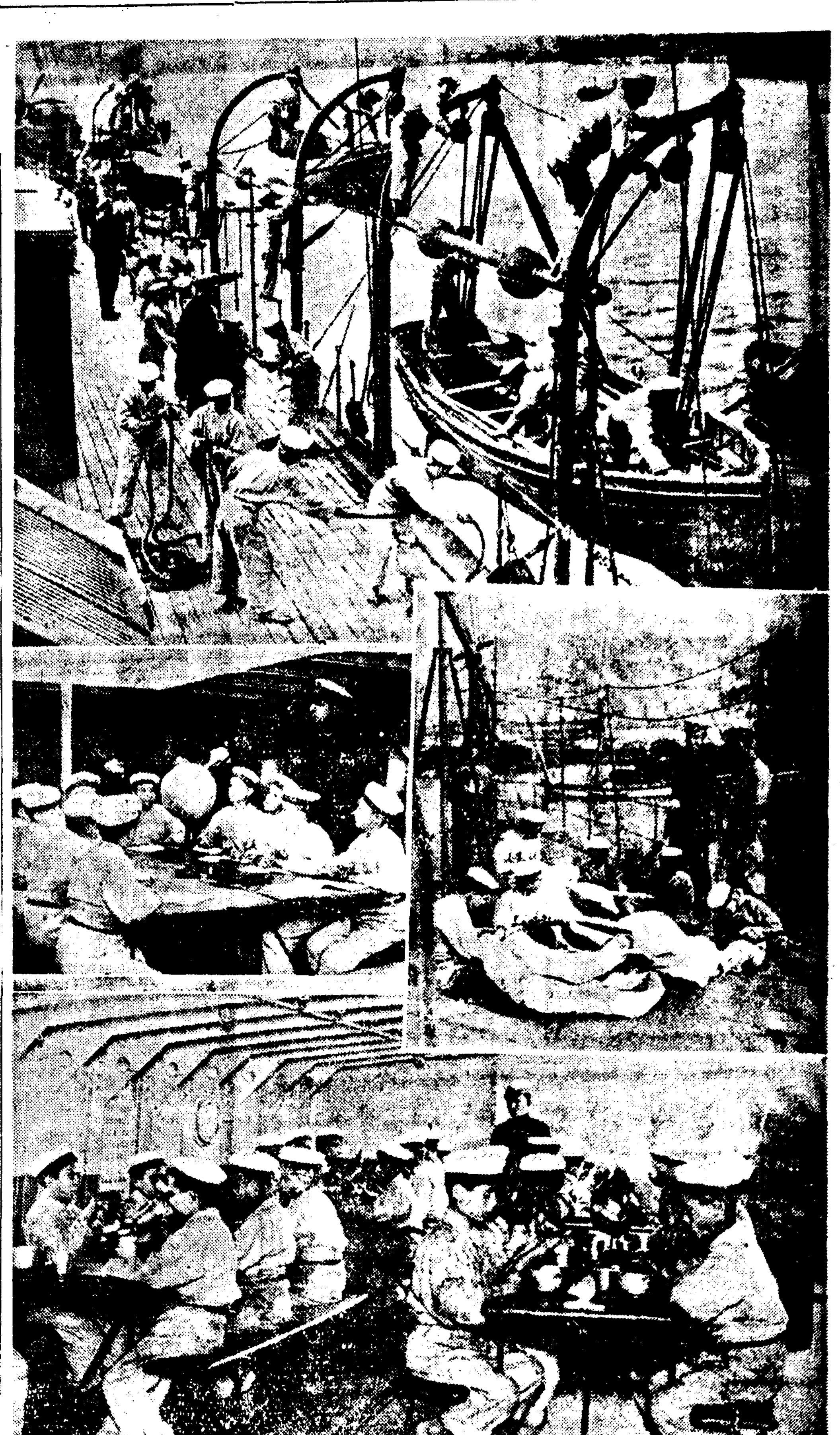
少年朝鮮日報

보십시요
도화、작문、동요、그리고 학교생활 이야기 자미스러운 이야기거리를 보내주십시요

납분애들착하게맨드는 이태리나라의 해상감화원
배우에서심신을단련식힙니다

세상에 착한부모나 조흔 학교에도 다녀서 착한어린이란 충찬을 밧는사람도 만치마는 그대신 어려서 마음을 잘못먹은탓으로 공부도잘하지못하고 나쁜버릇만 늘게된 불량소년도 만히잇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이 불량소년을 어떠케하든지 마음을 곳치게하고 다시 공부도잘해서 장내에 착한 사람이되도록 하려고 애를쓰고잇습니다 그래서 생긴것이 감화원이라는것인데이런감화원은 세계 어느나라에나 다잇는것이지 마는 그중에 제일 훌륭한감화원을 친다면 저 이태리나라 제노아 라고하는데잇는 『가라벤타해상감화원』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이 감화원은 다른것과 가티 땅우에 잇는것이 아니고 바다우에 떠워 잇는 배ㅅ속에다가 감화원을 채려서항상 바다의 신선한공기를 쏘이는동시에 자고 밥먹고일하고 공부하는것을 모두 제시간에 마추어서 꼭꼭규측적인 생활을 하게해서 평소에 행실이나쁜 든불량소년도차차로감화가 되어 착한사람이 되게하는 학교입니다。이감화원은본래서력일천팔백팔십삼년에 「니코라·가라벤타」라고하는어느대학교수가만드러가지고 지금은 그아들 가라벤타씨 가원장으로 되여 잇습니다 그리고 이해상감화원은 말한바와가티 행실 나쁜불량소년을 착한사람이 되게하는데는첫재바다우의조흔공기를마시면서 기루게 규측적생활을 하는것이제일조켓다고해서 생긴것인데처음에는아주구식으로된 배를타고 도라다니든것이 수년전에는 이태리 해군성의 후원을 바더서인제는 아주크고 훌륭한 배를타고도라다닌다고 합니다。그래서 불행한소년들은이배를타고다니면서신선한공기를쏘이고 활발하게 일을하면서 모두공부도 열심으로해서 정신과 신체가함께 단련되어 수양을하는동시 마음세도 고치지고 행실도 착해지지마는 이러케 훈련을밧는동시에 소년해군병으로서 모두 훌륭한사람이 된다합니다。그래서이해상감화원이 아주성적이 조타고해서 이태리에서는 이제노아말고 이해상감화원가튼 감화원을 여러개 만들 작기이라고합니다。



(사진 위엣것은 배소제、그다음은 공부하기와농구매기、아래는 밥먹을때)

아이스캔디ー 맨드러먹는법

요사이 눈을 이용하야 꿀보다 더단 아이스 캔디ー를만드러 먹는것도 조습니다 눈나리는직 아침일직일어나서 표부에 눈을담고 소금을섞거서 녹이면 영하십도(零下十度)이하의 찬 몰이됩니다 이것을눈소금이라고 하는데그속에다가 시험관을 세우고시험관속에 아이스크림 원료를 너허서 얼마동안세대로두면 아주 꿀보다 더단 아이스캔디ー가 됩니다 아이스크림의 원료는 계란두개에 우유한홉과 거기에설탕한사시를 갓득 너흐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가지가 한데풀리도록 잘저어서 너허야합니다 그러므로 시험관만잇스면 한번맨드러노흔 눈소금으로 여러 수십개의 어름사탕을 만들수가 잇습니다。

천기예보 비올찌 바람불찌 동물들이더잘아나바요

동물의 표정을보고 날세를 미리짐작하는법을 아십니까? 아주정확하게 마칩니다。 고양이가 얼골을 세수를하면 날세가 조화집니다。그리고 발로 귀를 덜면 비가 온다고 합니다。

개미가 발곳도록 활동을할때와 또한 개미 수효가 유달리 만흘때는 그이튼날 반듯이 비가오십니다。 개미가 자꾸 제집을 막을때는 반듯이 장마가 집니다。

개고리가 천기를 잘알아채린다는것은 여러분도 잘아시겟지요 개고리는 일기가조코 공기가 건조할때는 어디에 숨어버리고 비가올상십던지 날세가 흐리면 기운을내서 도라다닙니다。 개고리를 유리병속에 너코 조고만한 사다리를 노하주면 날세가 조흘때는 아래서 맥업시 쉬기만하고 잇다가 날세가 흐리면 사다리를 타고 올러옵니다。 개고리가 작고울면 그이튼날 비가오며 헌개치는천날은 개고리가 물에서 뛰고 논다고합니다。

갈매기는 천기를 최조소보다더 잘압니다。 갈매기가 유지에서 떼를지어 날러다니면 반듯시폭풍우가 일어나며 바다가운데로 날러가면 날세가 조화집니다

양은 기픈잠속에 차여잇서도 천기를 미리 짐작하는데는 용합니다 양이 나무미치나 담밋가튼데업드려서 (숨을때는 얼마잇지안허서 암우리조흔 날세라도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며 검은구름이뭉게뭉게금시에 비가쏘다질것갓더라도 양이그냥 가만히 잇슬때는 날세는 조화지고야 맙니다。

참새가 목욕을 하거던날세는조흔줄 아십시요 그리고 낙시질을해서 고기가 잘잡히는때는 얼마잇지안허서 비가 옵니다。 제비가 얏게 날러다니면 비가 오실종조고 소리개가 노괴띠면 바람이 세게불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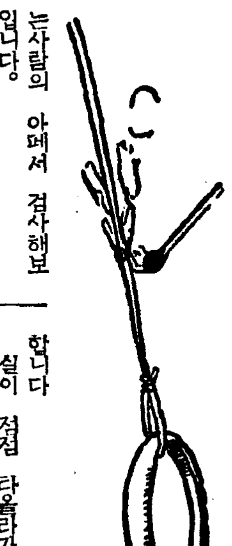
아이춥다

이런요술하시겟서요? 실을불에태워도 반지가대룽대룽

재미잇는 요술한가지를아르켜 드리겟슴니다 형님이나 아버지아메서 이요술을하야 놀래주십시요

×

아무리 태워도 끈허지지안는무명실 요술입니다。 『여기에 무명실이 잇습니다』하고 무명실을 구경하다 매여달니다 『자 지금부터 불을 붓칩니다 실이타더라도 반지가 떠러지지안키때 여러분은 손벽을처주십시요』하고 아주 연설을 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만든다음 석냥을켜서아래로부터 불을붓치기 시작합니다 실이 점점 타올라가도반지는 천연스럽게 떠러지지안코 달려잇습니다。 그러면 이요술은 대체어찌되는지알아두십시요 무명실을 명반수(明礬水)에 추겨서는 말리고 말려서는 추기기를 여러번하야 실이명반이 흠뻑먹도록하야 잘말리여둔 실이아니면 안됩니다 이러케한 실은 타더라도명반의힘으로 반지하나쯤은훌륭이 매여달릴수 잇는까닭입니다



동화 말로 쓸

李永哲

어떤 농부가 말두필을 길르는데 하로는그 말들에게 마차를 하나씩 끌려가지고 절을가게 되엿습니다。 아페 가는말이 기운차게 마차를 잘끌고가지마는 뒤에가는 말은 폐를부려 가다가는 우뚝서고 가다가는 우뚝서고 하엿습니다。그래서 주인은 뒤의말이그럴때마다 마차에 실은 짐을 하나 쿨 압 마차에다가 옴거 실엇습니다。뒷마차에 실은짐을 압마차에다가 최다 옴겨 실으니까 그때야뒤의 말은 살앗다는듯이 경쾌한 걸음거리로 걸어갓습니다。 그리고는 아페 말을 보고 『너는 아마고생올타고난 모양이로구나。 망할자식 가트니뭐、 먹고 살일이 낫다고 그리 기가 다 서 일을하니 웅、일을 하면 일을할수록 더욱더 어려운 일을 시키는것을 그걸 몰으고 열심으로해。나를 좀 보아라。좀 편안하냐 아무것도 아니 실고 가도 제대로 꼴을주고 먹을것을 주고 하는데…』 하고 빈정거렷습니다。 그러나 아페말은 뒤의 말이 빈정거리는소리를 들은체 만체 짐실은 마차를 기운을 내여서 『엥차、엥차』끌고 갓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인은 『말한필만 가젓스면 두필목에 일을 처치다 해놋는데 공연히 콩만 더드러가게 두필썩 먹일게잇나。일잘하는 말만 위하고 일못하는말은 잡아서 가죽이라도 쓰는게 낫지…』 하고 일을 잘아니하고 페만부리든 말을 잡아 업셋습니다。—꿋—

作文 초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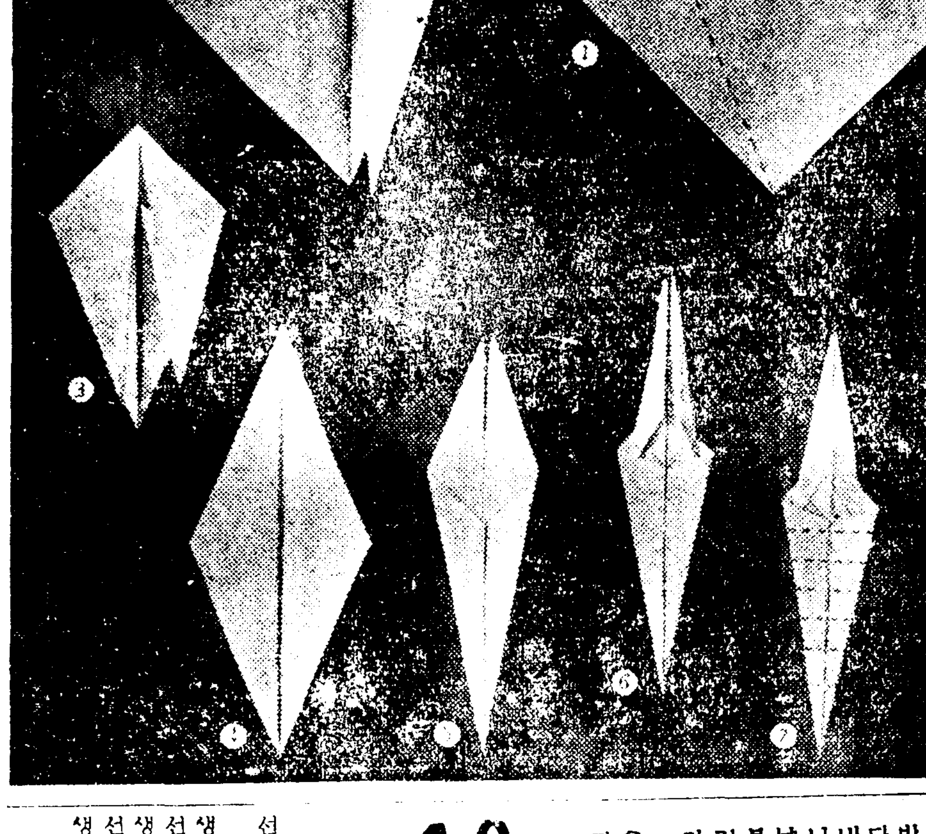
東大門女普校 四年 李鍾婉

선선하든 가을은 지나가고추운겨울이 도라왓습니다。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은 살을 어이는듯이부러옵니다 산에 어여쁘게 단풍이 들엇든입들도 그무서운 찬바람에 다떠러저서 산파를도 쓸쓸하게보입니다。참새도 추운듯이 나무가지에 올라안저서발발떨고 잇습니다 어머님이조석을 지으실때에도 추어하시는것을보면 아주 가엽서 못견디겟서요 사람들은 모두 추어서화로불만 쪼이고잇습니다 또 문박게잇는 거지들은 으스러치고 발발떨며 추어서 애를쓰는것을보면 내옷이란도 버서주고시픈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겨울이다처오면 마음대로 나가놀수는업지마는 스켓트타러는 잘나갑니다

조히접기 새우

이새우접기만은 양지보다 조선조히로 하세요 왜그러나하면 새우의등껍질마디진데를 접을때 양지는 찌저지기까닭입니다。

(1) 세모진(三角形)조히로 접습니다。그러니까 네모반듯한조히로 접는다면두마리가됩니다。 삼각 즉 세굽통이한복판을 연필로 긋습니다 그리고 그금을 따라접으며(2) (3)과가티 됩니다。 (4)는(3)의 수염두개를 중중로 빼치게한것입니다 (5)는 (4)의아래쪽 양쪽편을 복판으로 가저다가 접은것입니다 (6)은 수염둘을 갈게접은것입니다 (7) 연필자리는 안쪽으로접고 또바깥으로접고 이러케우에서부터 아레로 한마디 한마디식접되 이런마디를다섯개가랑만합니다 이것이 몸뚱이의마디입니다 (8) 다되거든 두쪽에접고 손가락으로 가볍게몸뚱이를 꼬부립니다 이러케두서너번만연습하면 새우접기는손에익고맙니다



추운겨울동안 금붕어거두기

겨울의 금붕어는 주울젓습니다 중우면 압길것도 먹지안코산다하야 미끼를 전연주지안는것은 잘못입니다。 더울때처럼 파식하는법이업스니 미끼를만히너허주어 조습니다。 물이흐려지기쉬우니 일정한시간뒤에는 나른미끼를 거저내는것이 조습니다。 여름에는한 항아리속에 너무 만히 여러마리를 너흐면 죽기쉬우나、겨울에는 조금만히넛는것이 도로혀 건강에조습니다。 물도 한려어 한번식은가라넛는것이조코 항아리속의물이 업서젓거던 달표쪽각으로자서 얼지안토록해주십시요 그리고 바람이업고 따스한볕말을 쏘여주도록하십시요 가엽슨 생명이 주위에 떨고잇스면서 여러분의 보호를 빌고잇습니다。

석냥불켜가지고 이리떼를쪼첫다

필란드라는 나라는 구라파의 북쪽에 잇는 나라로서 눈이만히싸이기로 유명합니다。

어느날 농부한사람이 썰매를타고 (숲속을거처서 집으로 도라가고잇섯습니다。 때마침 어디서 달려오는지 알수업는 이리떼가 모여드러서 농부를 에워싸고 커다란 입들을 벌렷습니다。 그러나 농부에게는 이리떼를 물리칠만한 총도、칼도 아무것도 업섯습니다。 썰매를 끌고가던 개조차 이리떼가 무서워서 빨리다라나지못하고 눈보라는날음여위는듯 몹시 추엇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하게되엿스므로 어떠케 하던지 이리떼가 덤비지못하도록 궁리를 해보앗스나 별도신통한의견이 나지안햇습니다。 생각하던나머지 짐승이리는것은 불을 실혀한다는말이 잇스니 마지막으로 이방법이라도 써볼수밧게 업다하야 주머니에서 석냥을 내여 한개식한개식불을켯습니다 이상스럽게도 그처럼 날뛰며 덤벼들든이리떼들은 불을보자 그만기세가 죽어지고 도리어 겁을내여도망가버렷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위태한목숨을 보전하고 무사히 집까지도라 올수잇섯습니다。

눈을처는 기차

눈이만히와서 쌓이면 기차도 길이막혀가지못합니다 원만큼 온눈이면 사람의손으로 처내기란 도하겟지만 기차가마고칠지경으로 눈이싸이면 그때는 눈치는기관차가 눈을치게됩니다 만일 그 아페가테가든것이 달려잇서 그것으로 눈을 치게되는 「랏셀」차、「로ー타리」차라는것이잇고 또「조설단」차라고해서 전기풍선처럼 아페달린 크다란 풍로빨리가 도라가면서 눈을헤치고 날리니것도잇습니다。

그건그러타하고 산비탈에서밀려내려오는눈을 어떠케막을까요 거기에는 산비탈에말뚝을 만히 박어 눈이걸려내려오지못하게하거나 콩크리트담을싸어서 눈을 막게하거나 집응을만드러 눈을 막는 여러가지법이 잇습니다

사진은를쪽으로부터 산비탈의 눈을치는사람 처노은눈을 차에 시러 멀리갓다버립니다、그다음 사진은 랏셀차、그다음은 눈막는콩크리트담

우슴단지

요놈

선생『이거 네가 지은 작문이냐』
생도『네 제가 지엇서요』
선생『이거 네글씨냐』
생도『저글씨예요』
선생『뭐야 네누이글씨인데』
생도『아이참 제누님 만연필을 빌려썻더니 그만누님글시처럼 되엿네』

"少年"二月號全國發賣

아모리더백여도다달이絶版! 注文은시방곳하시라!

참으로 굉장한 "少年"二月號 어른도 한번들면 노치못하는 冊!

★이소프의지혜 申南俊
★집의 시 초 金哲洙
★재밋는조선말 崔鉉培
★偉人의어릴적 車相瓚

시방생각해도고마운이
◆잘못덮어준어른…李書熙
◆불에서건진이…李箕永
◆우신아버님…安懷南
◆밥지어준분…桂貞植
◆고마우신세분…咸海松
◆호호할머님…崔泳柱
◆거저준뱃사공…嚴興燮
·해산보다노픈그은혜·

★少年音樂讀本 洪蘭坡
★少年健康讀本 鄭潤鎔
漫畫 요술지팽이 朴仁綱

童謠와曲譜 의떤집 李貞求謠 李一來曲 그림자 崔順愛

少年愛讀者寫眞帖

힘안드리고 사냥하는법
☆참새잡는법☆물오리잡는법☆붕어잡는법☆꿩잡는법☆기러기잡는법 (沈在業)

○미련이나라…楊在基
○돼지와여우…柳基煥
○쥐의공론…李蘇夫

★入選童話集★少年新知識★特選動物畫報★少年衛生室★漫畫學校★入選作文集
○少年作品大募集○

少年奇術大會
☆한손으로매듭풀기☆요술피는종이봉지☆구멍뚤린손☆서절로풀리는끈☆종이우편만들기☆꼬부랑길찾기☆성냥개비우물

特別畫報 世界人形展覽會

二大名作小說과童話 선머슴武勇傳·史又春 용철이의冒險·朱耀燮
◇세철問答集◇少年談話室◇그림俗談集◇갈갈笑年會◇재밋는손그림자장난

探偵冒險小說 白假面 金來成 鄭玄雄 畫

★『少年』販賣所大募集!
단十錢(送料一錢) 朝鮮日報社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鄭圃隱誕生六百週年紀念特輯

省墓行
—嘉谷村 圃隱墓를 차저—
李殷相

지난해 가을 어느날 나는 ■■는 ■■■이라쓰고 우리말로는 實村으로 圃隱의무덤을 차저간 「며주ㅅ고개」라부르는 山미를 일이 잇섯다. 넘어나자, 길은다섯갈래 이룬은

오늘이 마침 鄭圃隱의 誕生 「三거리」! 六百年紀念日이므로 나는 그날 얼마아니하야 龍仁에나려 아의 記憶을 더듬어 쓸쓸하던 이 는이인는 거리를 헤매다가 午 야기를 적으리라. 後도 두時나 지나 陽나루 가는 自動車에 몸을 실엇다.

×

그의무덤이 龍仁에 게시기로 지금 龍仁을 金良縣이라 부 水原에서 驪州行自動車를 탓섯 르는것은 옛날의 「金良」縣名이 던것이다. 옮겨와 불러진 이름이러니와, 利川縣은 옛적부터 陽村이엇 北으로 古林里거텨 「金陽堂」이 거니와 그제나 저제나 다름업 란 驛名이 아직껏 남아잇음은 시 寂寞하엿고 龍仁에서 흐르는 그消息을 더 分明히 傳함이라 는 素川을끼고 驪州에마을을 지 생각하엿다.

나서니 龍仁땅인데 외편으로 金良縣의 新事記에 「龍은小邑 풀」을 드러다보고 바른편으로 이로되 王都에 숫한곳이므로 大 「풀ㅅ고개」를 올려다보며 莫 小賓旅가 日夜輻輳한다」고하엿 川을 거슬려 莫谷을넘어나、漁 스나 오늘은 古蹟을 더듬는 草 汀浦、長子谷 지난後에 凄무로 草한 선비의 그림자조차 寂寞

하고나하고 얘기하면서 굿주 막히고 유치나고 「어린이」 유치나고 「당ㅅ골」을 지나고、水原땅을넘어서 厭谷이 란 ■미아며 나리엇다. 自動車는 北으로 제갈길을 가라하고, 나는 西으로 ■■■水를 헤치엇다.

■■■■里까지 예서도 十五里! 해지기前에 들어가려고 걸음에 재촉노화다.

그러나 걸음은 비록 방불지 라도 마음은 ■■한 ■관과합께 ■■하고、또 ■■한 山언덕과 더불어 ■■하야 스스로 어찌할줄을 몰랏섯다.

거리에 奔走코저하야 奔走한 이아니요、이를파마음을 숨기고 저아니하야 숨기지아니함도 아니로되、이러한곳에 불러와 探 山釣水로 살지못함을 누구서 못 는다면 또한 내죄죄이 ■■하 지는 못할것임을 헤아리고서 ■ 劣하고도 可憐한 ■世를 스스로 한번 苦笑하엿던것이다.

더구나 이곳은 圃隱이 무친 곳이오、牧隱이 또한 다니던곳 이오、牧隱의記■ ■하면 그와 가튼 가을바람에 나붓기기도하

곳이다. ■■이런 ■■■■이 ■■하던 자리 지나가는 나그네라 ■ 옛스러운 ■으로 ■■고개를 넘어오는 ■■후어이 ■山里로 들어가며 ■는 조이ㅅ길가티 넘어젓다. ■氏■■에 바라보면서 이루언는 ■■이 ■■을 더■■■■ 어다. 이 적이 그러로 ■■■는것이

와 이름관 어늬 언덕을 ■■ 하며 李穡之의 한수였이 오늘 떠거볼는 목청은 雨露에 절로 자란 푸섬귀맛가티 구수하다。 당。먼귀에 ■■은 分揀못하나 저멋대로 소리하든 몸을 ■■

은 이곳■■而城內로 ■州의五 ■力 다함만이 아니엇던것이다 해가지되 나려가기를 이즌것도

엿하을 東山里는 지금에 ■■ ■한 비롯인데 ■■■의 「■■■」 ■■生」前도 ■■이오 ■■연 서 지는해와 더부러 ■■■■ ■里로 들어섯다。

圃隱의 ■■이 잇슴도 압 거마는 내걸음이 그들에게서 ■ ■비드려함이 아니오 나도한사람 ■■으로 省墓하려온 걸음이라 개울가에 물작난하는 ■子하나 ■ 잃으켜압세우고 무덤만으차 저던것이다.

尤■이 ■■한 先生의■■를 ■下에보고 올라가 墓前에 업 대엿다.

六百年 風雨속에 ■■엇지 ■ 도 圃隱의무덤은 보는이로하 금 저윽히 安心하게 하면서 六百年後에 圃隱의무덤만이 ■■엇시 직히어진것은 圃隱의뜻 이 아닐것이라 생각하엿다.

朝鮮儒敎史에잇서서 鄭圃隱의功績과地位 (一)
崔益翰

一

佛敎崇尙을國是로한 다시말하면 佛敎를國敎로한 高麗 더구나 歷史的慣習의겨지가 케케묵은 四百年後의末期에 잇서서는 俗과 民俗을勿論하고 佛敎의感化는 實로不可抗的이엇다. 文敎와 政治를運用하는 縉紳大人은 衆生導化의究竟法을 佛의法門에 하소연하고 心性과道理를 말하는 學者와先生은 度身解脫의要諦를 또한佛의 奧妙한世界에서求하는 그先驗的思想은 實로當時의 普遍的 浸透的現象이엇다. 當時儒林界의領袖으로서 名望이 一世를울리든 牧隱李穡가튼이도오히려 侫佛 好佛(?)의 기롱을 後人에게 듯지아니하얏는가 이러한 판국에 잇서서 圃隱은 時代的 新傾向을 代表할만큼 佛敎를排斥하고 儒敎의旗幟를 노피드러다. 圃隱은 門下實成事로서 恭讓王의經筵에서이러케 말슴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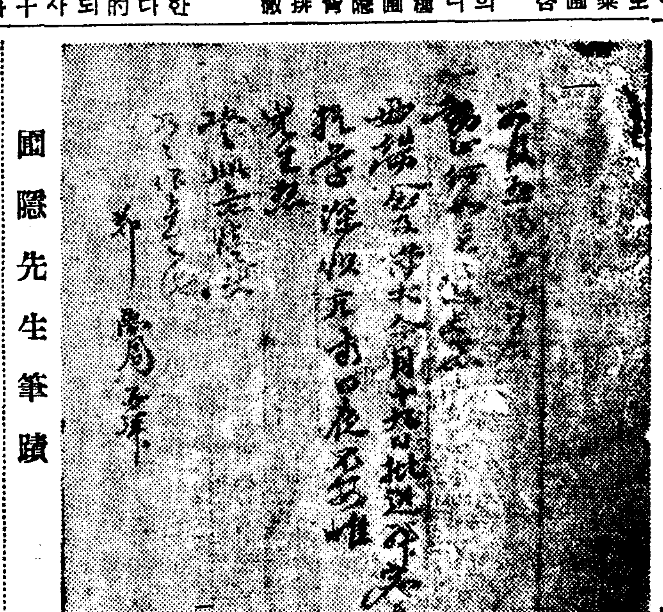
「儒者之道 皆 日用平常之事。飮食男女、所同也。至理存焉。堯舜之道、亦不外此。動靜語默之得其正、卽是堯舜之道。初非甚高難行。彼佛氏之敎、則 不然。辭親戚、絶男女。獨坐岩穴、草衣木食、觀空寂滅、爲宗。豈平常之道哉。」

이賢辭는 勿論 佛敎의一面觀이고 그全體에對한的中은 될수업스나 어쨋든 儒敎를 入世間的敎라고하면 佛敎는 出世間的敎라고 對照해말할수잇스니 圃隱의排佛揚儒的論據는 現世的封建的政敎를 主張하는 見地에잇서서 확실히 힘이지안엇는가 더구나 그時代의 歷史的機會가그 論據를 積極的으로 支持지안헛는가 妖僧辛旽의 기마킨濁亂에 對한 쓰라린經驗이 아즉 새로운곳한 그때에 恭讓王은 僧桑英을 王의師로 모시라는데 圃隱은 反對하기爲하야 如上한諮辭를 드린것이다

그러나 그當時에 排佛揚儒의 思想은 圃隱의 獨特한것이아니고 圃隱을 둘러싸고잇는 一種의社會的雰圍氣이엇다 벌서 圃隱의儒敎가 아니고 儒敎의圃隱이엇다 圃隱과 는 時義의向背를달리한 三峰鄭道傳가튼이도排佛에 잇서서는圃隱보다 一層徹底하다고 自許하얏다

二

여기서 高麗朝의佛敎에 對한史的縱觀을 잠깐 必要로 한다 高麗太祖는 術僧道詵의布敎的手段인 風水地理之說에 誘惑되야 佛敎를 尊崇하야 國敎로삼어다것이 一般史家의 太祖「十訓」에 對한 定說이다 그러나高麗太祖는 한개術僧의 籠絡에 넘어가기에는 너머나 聰明하엿다 佛敎는 新羅、더욱히 統一後의新羅에잇서서 實로 全盛의盛觀을 나타내엿스나 新羅亡의條件——綱紀紊亂하고君臣이淫逸에빠지고、百姓이飢餓에 ■하고、盜賊이 蜂起하얏다는



圃隱先生筆蹟

것이다 統一을 固持하고 一千年新羅가 瓦解된三韓을 收拾하고 國家的必要에서 佛敎를 倚用한 傳統을 繼承한다는 政治的、國家的必要에서 佛敎를 倚用하얏든것이다 그래서 阿眼과翠麗太祖는 瓦解된三韓에 對한 統一을 固持하고 ... 또는 適應한 當職으로서 佛敎를 信用하얏든것이다 이것이 高麗朝에서 佛敎의國敎된 唯一한理由이다 결국은 術僧道詵이 太祖를 利用한것이아니라 도리여 그反對이엇든것이다

高麗朝의佛敎는 國敎的地位의明瞭으로따라서 高麗四五百年동안에 敎化的으로 支配的恣行을 마지아니햇다 經濟上、政治上모든制度上眞實은 唐宋의模倣과 佛敎的施設이 그의基本的大部分임에 不拘하고 「一切唯心造」인無上한權能을 가진佛敎는 思想上에잇서서 平等에는佛敎가 政治的으로 그責任을지지아니햇다 同時에 當時半島의社會的、民智的程度는 그信仰과感化의 狹制的紐帶를 佛敎에나 道敎에가 아니고 오즉 佛敎에

泛한 土地와山林은 無數한寺院의 占有物이되엿고 僧侶의貴族的貪慾과 浮世的墮落은 그制限을 모르게되엿다

그래서 佛敎는 人民의信仰的對象으로부터 人民의 實際生活에對한 巨大한 怨府로 化하게되엿다 이러한 矛盾撞着의社會的現象에 意識的 또는 無意識的으로 迎合、追隨、或은 그것을 利用하는 政治的、思想的表現이 卽 當時 識者階級의中心하야 우一하고 이러나는 排佛運動이엇다 圃隱의排佛은 그當時의社會情勢을 正當히 代表햇든것이다

三

排佛은 반드시 揚儒를 意味한것이아니다 排佛은 반드시어느識者階級이 佛敎全體를 참으로批判한 結論으로서가아니고 것과 마찬가지로 揚儒그것도 또한儒敎全體의 長短을 어느識者階級이 참으로 認識한 結論으로서가 아니엇다 만일 그當時에조선의 테안에 儒敎란 一定한文化的形態가 全然업섯드면 엇지되얏슬것인가 그들은 儒敎아닌 다른敎 말하자면 耶敎나道敎或은 佛敎의 別個的方面에다 가 傳統的 歷史的籠事을 假托하는同時에 그것을 理論化시켜서 排佛 旣은 敗佛의 器具로서울로 써 먹엇슬것이다 비유해말하면 어느物體를 攻擊할必要가 切迫할때에는 銃이나 칼이나 몽 맹이나 木棒이나 그어느것이든 지 손가까이 잇는것이 가장便用되기 쉬운것이다

麗末의 排佛運動에잇서서 그運動에 直接當事한 個個人의意識世界에 잇는 儒敎는 一種 先驗的選擇에依한 唯一無二한 正當한것으로서 보이엇지마는 그個人의意識을 總括指導한 歷史的 社會的性格은 儒敎에對하야 佛敎를 必然的으로 代位할만한 唯一無二한絶對性을 賦與치아니 ■ 고 다만 佛佛의 絢爛한名義의 ■■속에 基本的으로存在한 當時社會的現實條件이 드듸여 佛敎의退場과 儒敎의登場을 歷史的으로 命令하엿든것이다

圃隱先生影幀 —李漢福氏臨模—

麗末의兩班階級生成과 鄭圃隱의活動
洪起文

高麗에서 佛敎文化를 樹立하야 文化라는 空名을 떠나서 生成에 잇서서 가장 큰 功勞者 이 兩班階級의 偉大한 代表人가 누구나 못는다면 누구나 鄭圃隱을 보려 할이 이 라 할 것이다. 그 前 小論文의 目的이로되 적은 紙面에 安文成公 (의 易東)과 가튼 長尨한 論述을 避코자 함이 이가 잇섯다고 하지만은 圃隱에 이 가튼 略히 나의 要旨만을 적음에 그 칠까 하야 길을 열며 지나지 못 하고 그 場所로 ■■ 치것다.

×

兩班階級가튼 이가 잇섯다고 하지 만은 圃隱의 이미 닥거 노흔 길을 더一層 擴充 整頓한데 지나지 못 한다. 그러면 儒敎文化의 그 裏面에는 兩班階級의 原動力을 이저버리지 못할 것 이라 儒敎文化에 對한 그의 功勞는 다시 兩班階級의 生成에 對한 功勞로 옴아 간다. 儒敎

『今我兄弟雖分損一國。然系本奉祖。若以先配東國。得莫護乎』이 것은 麗末에 ■■■이 그아우 忠穆에게 이른 말이요 「■國自度宋以來、朱■多紀於■■、王陵將相奉有國乎、時來明可得也」 이것은 崔와 同時의 私■■■이 公私奴隷에게 부르지즌 말이다. 이 두 마듸를 미루어서 우리는 高麗에

도 新羅의 ■■이 남아서 家系를 重要히 보든 ■■이 잇섯 다는 것과 그 反面에 ■■中으로부터 大官高爵이 만히 생기어 서 家系本位가 混亂되얏다는것 을알수가잇다. 그以後에도 ■ ■社會의 이와가튼 現象은 줄 곳 繼續하야 왓스나 麗末에이 르러는 元의 內政干涉이 불러 가고 明의 힘이 미치지 못함 을 틈타서 在來로부터 仕宦에 從事하든 階級들이 政治的으로 實勢力을 ■■키에 이르럿다.

첫재 僧侶의 政治的干涉에 ■ 民에 對한 그行■ 甚하야 國 內의 한 ■風을 이루든 만한 그들은 佛敎대신儒敎를 鼓吹하고 ■民 多年間 文化가 나웁殘丹 ■■ 聖古■에 ■■■에 떨어서 속으로는 ■■의 ■이 가장만한 그들은■■排元을 主張하고 셋 재로내 多數의 人心을 收攬키 爲하야 田制等 내정의 改革을

■하고 넷재 武臣의 跋扈를 끄 리어 崇文의精神을 기르기에 합 ■ 섯다. 그러나 그들 ■■獨으로만은 政治上 그만한 實行力을 保障 키 어려웟다. 아모래도 軍力을 가진 ■■■家의 保障을 要하게 되엇다. 鄭■■과가튼 ■■忠 臣이나 ■道傳과 ■■■과가튼 開 國功臣이나 처음에는 다가티 兩 班階級의 生成을 努力하든 同 志요 또 다가티 太祖 門下에 往來하든同類다. 高麗排元■■■ 斥佛에 잇서서는 일즉이 圃隱도

■■ 昌王을 廢位시키고 先■인 牧隱을 동지고 鄭■■ 더부러 한께 서기를 부끄럽게 녀기지안 햇든 것이다. 萬一 圃隱만 잇기 어 하얏든들 開國功臣의 第一 位는 이미 그의 것으로 제처 오런 記錄이라고 한다. 階級的 ■■■■■■ 兩班이란 말의 가장 ■■■■■■ 兩班이란 말의 記錄에서 兩班의 이름 아래 ■■의 ■■한 ■■ 는 그것도 勿論 ■■한 일이 엇슨것이로되 興味잇는 일이다.

兩班階級의 師表를 ■■ 이 아 니가 圃隱을 ■■■ 太祖自身 이 그를 忠臣이라고 하야 ■■ ■■ 은 안이나 五百年 ■■ 동안 ■■ 朝의 兩班政治는 圃隱■■으로 모 圃隱에게 ■■바 크다 尤■■은 「用華制夏胡始使我東土得中國之禮。而■■■■■■■■之」 先生之大功乎。」라고 말하엿는바 이와마든 ■實로 圃隱의 一面 을 잘 알함이다.

×

家系와 ■■에게 ■■을 주고 圃隱의 短禮로서 『■■■之女之■ 族。■■■■■■■■■■■■■■ 之禮義。』라고 한 것이 階級 의 ■■로서 兩班이란 말의가장

龍仁의忠烈書院 (今廢)

圃隱先生略譜

이歷史的命令을 圃隱은 果然 어떠케 ■行하엿든가 ■■ 圃隱은 才弱가 ■■하고 博學多聞의工을 ■하고 文武과■ ■■ 當世宿儒大家의敬服을 바 덧고 對外的으로 ■히 어려운 ■■

交■에 ■■■走하야 ■■功을 하엿스며 對內的으로 ■■■ 하야■■에 ■하야 官制■■ 紀■■ 政務■■ ■■水■■의 ■■ ■■ ■■■■을 ■行하 엿다

▲高麗忠肅王復位後六年(一三三七)十二月戊子日(二十二日)에 永川郡東愚巷에서 誕生. 夢蘭으로이름을 짓다. 아버지는 日城府院君 云瓘이요 어머니는 卞韓夫人 李氏다.

▲忠穆王元年(一三四五)九歲때에 夢龍으로 改名하다.

▲恭愍王四年(一三五五)十九歲때에 外艱喪을當하야 廬墓三年하다.

▲恭愍王五年(一三五六)二十歲때 夢周로改名하다.

▲恭愍王九年(一三六〇)二十四歲때에 連魁三場에 第一人으로 登科하다

▲恭愍王十二年(一三六三)二十七歲때 八月에東北面都指揮使、韓邦信의 從事官으로 딸아가서 女眞 三善三介를 和州(咸興)에서 征伐하다.

▲恭愍王十四年(一三六五)廿九歲때 內艱喪을 當하야 廬墓三年하다.

▲恭愍王二十一年(一三七二)三十六歲때 三月에 書狀官으로 知密直司事 洪師範과함께 賀平蜀使로 明에 갓다가 돌아오는 길에 風浪을 맛나서 洪師範은 죽고 先生만 生還하다.

▲辛禑元年(一三七五)三十九歲때에 北元使者를 迎接하려는 當路者들과 意見이 맛지안하야 彦陽으로 귀양가다.

▲辛禑三年(一三七七)四十一歲때 三月에 서울로 돌아오고 九月에 大司成의 職으로도 日本에 使臣가다.

▲辛禑六年(一三八〇)四十四歲때 三月에 ■■■■■ 拜하고 가을에 助戰元帥 太祖를 딸아 全羅道雲峰에 나려와서 海寇를 처서 大捷하다.

▲辛禑八年(一三八二)四十六歲때 四月에 使臣가다가 遼東서길이막히여 돌아오고 十一月에 또다시 明에 使臣가다

▲辛禑九年(一三八三)正月에 遼東까지 갓다가 또 더가지못하고 돌아오고 八月에 東北面助戰元帥로 太祖를딸아 赴征하다.

▲辛禑十一年(一三八五)四十九歲때 또다시 明에 使臣가다.

▲辛禑十二年(一三八六)五十歲때 四月에 歸國하다.

▲辛禑十三年(一三八七)五十一歲때 明에서 돌아와서 衣服制度를 改定하다

▲辛禑十二年(一三八六)五十歲때 公私衣服의 標本을 어드러 明에 使臣가다

▲辛禑十四年(一三八八)五十二歲때 正月에 遼東까지 갓다가 돌아오다

▲昌王元年(一三八九) 五十三歲 때 十一月 門下贊成事를 拜하다

▲恭讓王二年(一三九〇)五十四歲 때 十一月 純忠論道同德佐命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守門下侍中 判都評議使司 兵曹尙瑞寺事 領經筵事 右文館大提學 藝文春秋館事 領經筵事 益陽忠義伯을 拜하다

▲恭讓王三年(一三九一)五十五歲 때 十二月에 安社功臣의 號를 받다

▲恭讓王四年(一三九二)五十六歲 때 四月四日에 善竹橋上에서 遭禍되다

▲朝鮮太宗元年(一四〇一)에 領議政을 ■■■■

▲太宗六年(一四〇六) 저음 龍仁에 改葬하다.

(高麗史 圃隱先生集等에 依함)

—記念日前夜—

이 ■■■■ ■는 ■■나 물어볼것 잇는 野村에 ■■ 먼 ■■에 ■■ ■ 차저 들어야 하고 自然을 ■■하야 ■■■에 ■■■해도 ■■■ 하는것이야 ■■ ■■■ 이다

몸지안은 忠烈書院이야 ■■ ■■■ 업기로 압山넘어 自然■ ■■ 소리가 들고 시퍼다 ■■■ 밤이나 ■■■■에 잘곳업기로 밤시길이나 ■■十五里를 돌아 나와다.

옛사람은 名分의 길을 ■하려엿고 지금사람은 生活의길을 ■■하기에 바ㅅ븐것을 생각하면 서 ■■한 ■■을 ■속에 ■■ 으며 군데군데 잘드는 野村을 지나 돌아왓섯다.

(寫眞은圃隱先生墓前의■■■■)

新春一等當選小說 남생이 (十三)
玄德 作
洪祐伯 畵

그러나 어쩌지 미■에 다시어 번에는 여갯신이 사람을 다해우고 올족이기 시작하거던 하 고 노마는 자리를 뜨지 못한 다. 어머니를 기다리는것이다. 그배가 올족이기전에 어머니는와 다. 그러나 건너편 세판아플오 면서부터 눈을 흘기고 『뭣하러 까철러 다니니 배라 먹게!』 하고 노마의 머리를 쥐여박고 『아버지에게 말하면 이거다 이거여』 주먹을 쥐여 우리는 시늉을 내다가 그손바닥을 펴 돈 한 푼을 보이며 어머니는 놓친다 『바아지가 오쩌두 듯지말구아 버지 시중 잘 드고 잇서 응』 착하지 그리구 아에 나 봐단 소리 말구 응』 어머니는 등을 두들기며 음 성이 다정하다. 노마는 나슬써 우리를 가만히 그러 어쩌지 우롱이 나와 참는것이다.

이날처럼 노마에게 집의 아 버지가 불상하고 쓸쓸하게 생 각된 때는 업다. 아버지는 쓰 레기통 여페 다리를신보다 더가 열고 노마 자신보다 더 적고 쓸쓸하다. 오늘도 아버지는 앗 가슴에 남생이를 올려 노코누 엇스리랑。노마는 가가마다 기 웃거리며 손아귀의 돈 한푼과 그곳에 노힌 물건파를 비교한 다. 사과 귤 감 유리병속에 든 과자 모두 어렵나다. 끝목길로 드러서 눈은이가 안젓는 구멍 가가에서 노마는 붕어파자 하 나와 바꾼다. 아버지에게 드릴 른다

만큼 노피는 몽울탓스리라. 서 한층 두층 곱보 이놈도이 는 손 자불데 발붙테가 다잇 데까지 올라가젓다. 거기서부러 ■■ 서너산 노피 ■가지 진 그 나려다보이는 시야가 결 코 뛰어원 위에서 보는때보다 그리 ■지도 멀지도 못하다 할 지라도 이러케 놉히는 길 집 사람들이 아주 달러 보이도록 나부 쌍가지에서거꾸로 보기는 노마 아니면 할수업다。『곱보야 곱보야』 제법 큰소리로 별령을 부를 만도하다。저 아래서 조고마케 영이할머니가 올상을하고 처다 본다。이런데서 거꾸로 보는사 람의 얼굴이란 저런게다。웃셔 까지 우룸에 섞겨 손짓을한다 오늘 노마의 성음은 영이할머 니를 올리다시피 장한것이지도 모를일。그런데 노마집분아페는 동내집 여인들이 중계중계 큰 일난 얼굴로 모여섯다。한번도 드러보지못한 그리나 어머니음 성이 분명한 곡성이 모기소리 만큼 가늘다.

모두 거지뿌렁이다. 참 서름 에서 우러나오는 울룸이고야목 청만이 노래부르듯 청승마즐수 업다。치마폭에 얼굴을 싸고업 드리엿다 문득 나올 드는때 어 머니나 골목뒤로 도라가 얼보 와 수군수군 공동묘지를 할것 인가 회장을 할것인가 손가락 을 꼽으며 구구를따지는때 어 머니는 영이할머니 보다도 예사 롭다

그러나 어머니와 시야에서 본고 토리 생각이다 아버지는 노마 이상으로 이러하는 다 먹어 간다고 나 러타。

조금후 눈으로 바른 콩알이 떠러저 손에 자핀다。협수업스 니까 노마는 먹는다。비위가동 한다。이번에는 제손으로 지르 테미를 떠여먹는다。이러것을 업 서도 붕어모양이 흘러지는것이 아니니까 표가 안난다。그러나 찡지만 먹자는것이 야금야금절 반을 녹이고만다。

노마는 차침 무거운 마음에 서 푸러저 즐거워진다。멀리떠 러지면 할구는 마치 커다란소 곱작난판갓다。

노마가 급기야 토담모퉁이양 버들나무를 올리갈수 잇는날도 마아버지는 세상을 떠낫다。

그날은 실로 이상한날이다。 그러케 어렵든 나무가 쉬운는

군 거리가 보이지 안코 드러 ■ 한다

노마는 몸을 굽히고 허리를 굽혀 든 버선치마를 볼이고 노 마는 붓치 ■ 을 ■■이 잡 고 ■이 잡 ■■■ 근구랑이 고 한 다.

性慾減退 器無力

藥術界의驚異

먹으면 그날에마음대로되는

性의長樂不老劑

性慾學鬼才 日獨醫學博士 羽太銳治氏 新發見

性力의湧出素 性홀몬主劑品

キング・オブ・キングス

古代强性法에對하야 羽太先生 談

長春術、卽强性法은 일직이支那에서는 驚嘆할만치 만히發達되어잇섯스니 例를들면童尿(童貞의小便)와 紅潮(處女의月經)을먹으며 動物의産後에 그胎盤을먹는事實을조차 사람의胎盤을먹는것을强性法으로하며 至今까지도支那에서는 盛用하는地方이 잇다。이와가티 古代로부터行하야나려오는强性劑를使用한以上의物質을 明哲한現代醫學으로 分析實驗해보면 거기에는 生殖腺內

秘素『性홀몬』이 極少量이包含되어잇는것이 判明되엇스며 또는相當한效果를엇게 되는것도 至今까지盛用하는것을 보면 無理의事實이라고 스스로 首肯할수밧게 업습니다。그러므로 『性홀몬』이 며萬分의一인極少量에도不拘하고相當한效果를엇게되는以上 萬若純全한 『性홀몬』이면 그效果가얼마나卓越할것은 以上의모든事實에 비추어볼지라도 諸君은잘理解할것입니다。余의發明한『キング、オブ、キングス』는 男性

動物의生殖腺에서 特殊한科學方法으로 無効物을除去하고 有効成分인『性홀몬』만을 抽出하야 그것을主成分으로하고 效果의快速을期圖할目的하에 某種의化學藥品을配合한後에 製藥化한것이므로 아무런性的障害에라도 服用한지 不過三十分이면 性慾을旺盛興奮케하며 性器를活潑强大로 誘導하야 男女間의性生活을 灼熱의 一路로 滿足케하는同時에 期待한바의目的이 조곰도 틀림업시完全達成케될것은 責任지고 斷言하야마지안노라

발광하게든早漏가그만全快
(元山) 曺烈煥

말못할早漏症으로 누구나 다 하는노릇을 못하는것처럼 本人으로하여금 기가막히게하는것은 또업슬것이오며 더욱이 못처디 게되든것은 早漏가되지는 그當時의心理는 이로어떠타고形言할수업도록 氣分이不快하며 發狂할지경으로서 憂鬱하기 짝이업습니다 또는그뿐만아니라 元氣까지 몸이나날이 衰弱해지는대는 事實悲觀不已이엇습니다 그러나幸히 友人의紹介로『キングス』를 服用하야 그리케苦痛밧든早漏가 自己로서도 놀랠만큼 五圓分으로 全快되는데는 하도神奇해이글을 올니는바이오며 五圓分中旅費를代引便으로注文하나이다.

질색하든陰萎가아주回復돼
(大邱) 鄭仁杰

經驗이 잇스신분은 잘아실것입니다마는 陰萎란 참으로不滿케하야 애를태워주며 사람들을 복는 못된症勢를年齡에비하야 小生은多年間 이陰萎로 無限苦生을하엿든中 第一질색할것은 中途에 그만萎少해져서 不能케되오니 이러케한일이 또잇겟슴니까 妻는 不滿으로 생트집만 부려

그야말로 無味한歲月을 보내고 잇섯든바 貴堂의『キングス』 十圓分으로 回復될줄이야 意外이엇사오며 服用한지三日만에비로소 滿足한目的이達케되는대는 果然宣傳과如히 名實한好藥이라고認定하오며 妻의勸으로 十圓十五錢先送하오니 速送해주시기를 仰望합니다

혼자서속태우든恨을푸럿다
(京城) 林萬植

三十 이되도록 小兒와如한性器의所有者라하면 누구시든지우스실줄로 압니다마는 그러케된本人의心事는 正反對로 大變痛哭해도 시원치안는 一大怨恨之事올시다 小生이 不幸한그一人으로서 남에게 말도못하고 혼자만속을 태우고 잇서사오며

夫婦와 ■■에게 갈여 女性한테말하여서도 同房을不許하게되니 더러 욕이 恨이되엇습니다 그러다가 貴堂의『キングス』의 宣傳을보고 止되엇든것이 完全한狀態로 强大해저恨을풀고보니 ■■에 ■■ ■■하고 여러 ■■■해하야 ■■■■■■

强性에힘써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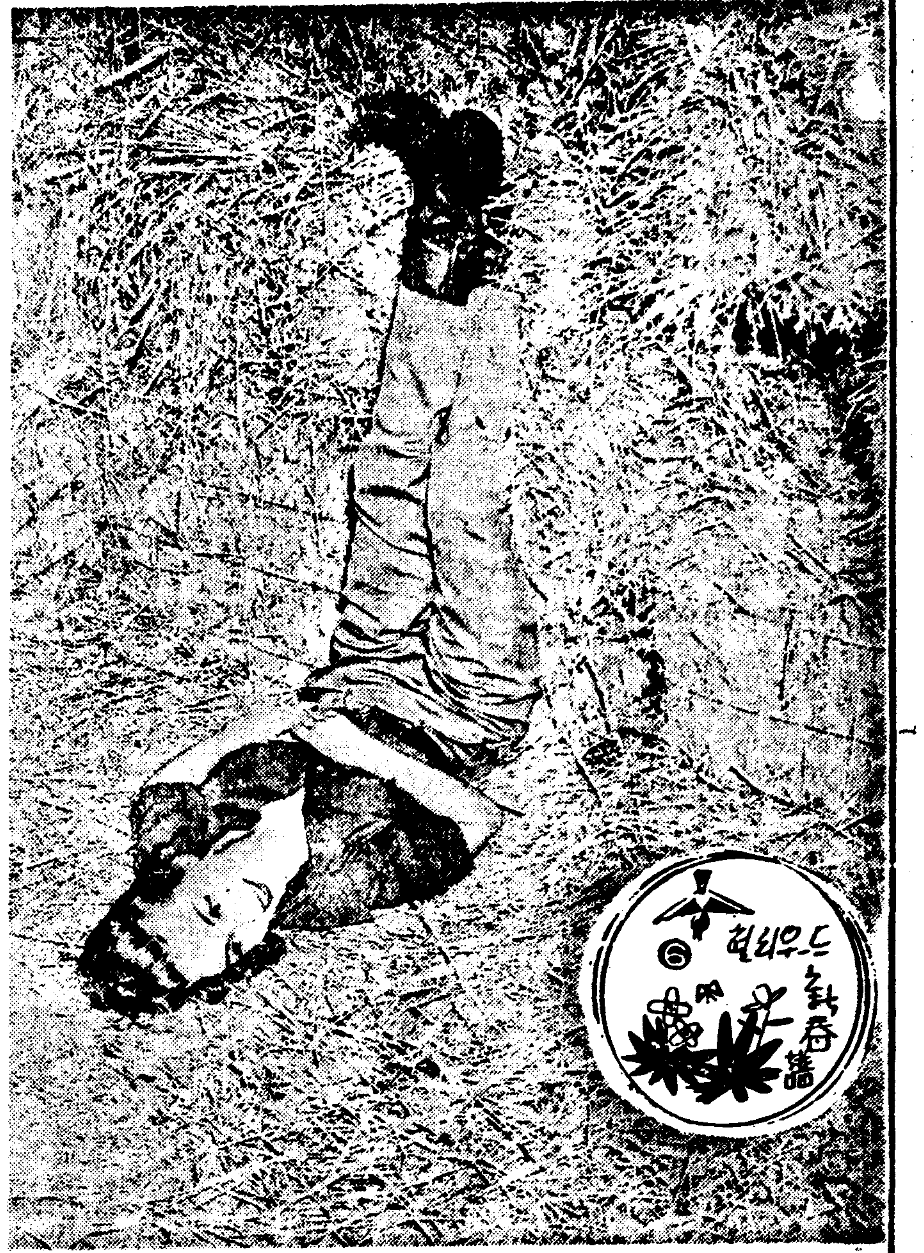
性의健全은 人生의最大의使命을完成케하는要因이되며 男女間의愛情을熱烈化케하는同時에 無限한幸福感을주어 一平生生活에重要한原動力이 되어잇슴에도不拘하고 性에對한無理解로 自瀆의惡習과過淫의原因인 性的障害를無視하고一生을可惜케破滅에 ■■ 그것은 自己의前程을破滅의一途로 그르치게하는것이아닐까!그러므로 性이人生의一生을支配하는이 如何히큰가를認識하는同時에 조금이라도 性의缺陷을自覺케되거든 自己自身에그以上더 큰問題가업는것으로알고 適當한方針을講究해주며 速히强性에힘써주기를바라노라.

注文은直接本舖로

一生을幸福케하고 長樂으로引導하는藥의效果를 證明하고 僞造防止키爲해 直接本舖에서만販賣하오니 希望하시는분은 振替、또는小爲替、或은代金引換으로 注文하시면 急送합니다 送料는 四十七錢이오나 本報讀者에限하야 三十二錢은本舖에서부담하오니 十五錢만은 加算해주시요

藥價 (小瓶) 一二〇粒 十一圓 (中瓶) 六〇〇粒 十五圓 (大瓶) 二〇〇粒 二圓

東京市芝區琴平町 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春泉堂 (振替東京七七一番)



카롤●롬버드、

趣味 娛樂

全米에喧傳되는 갈보의結婚說

×…銀幕의明星 그레타·갈보는 크리스마스休暇를 故國瑞典에서 지내려고 十二月中旬에가마니 뉴-욕을 出帆해서 스톡호름을向햇다。

×…사람을 끄리는 例에 依해서 新聞記者를 避하는데 여러가지로 苦心한때문에 新聞記者들은 갈보가 허리웃드를 出發한것을 눈치채리지못하고 뉴-욕出帆하는刹那에야 겨우 갈보를 發見햇스나 그때는벌서 때가지난지라 나종에야扼腕切齒하엿다고한다。

×…더구나 出帆을 하는데는 뚜밧게도 일직부터 갈보와 結婚한다고 소문이노픈『오-케스트라의少女』의主演者레오폴드·스토코우스키-氏가 오직 혼자나와서 餞送하고잇는것이 發見되엿슴으로 갈보와스토코우스키-氏의結婚說은거의 確定的이라는것이 證明되엿다。

×…스토코우스키-氏는十二月初旬 夫人과 離婚햇는데 夫人이 離婚訴訟을 提起한理由는 氏가 갈보와 親密하게되엿다는때문인 程度인데 갈보가休暇를마치고 歸米하는것을 기다려서 스토코우스키-氏는갈보와 正式으로 結婚式을 擧行하리라는 소문이 지금허-리웃드에서는 藉藉하고잇다。

라디오

二十二日(土曜)

◇午後六時 合唱과獨唱 一、合唱시내 二、봄꼿 三、獨唱자장가 四、合唱故鄕의廢家 五、獨唱旅窓 六、齊唱부헝이 七、合唱水仙花 八、齊唱바다 京橋少女合唱團 伴奏 尹正子 指揮 申昊燮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算術(三) 崔和元

◇同七時四〇分 趣味講演『黃河의今昔』 齊藤 金道泰

◇同八時一〇分 一、새打鈴 二、六字박이 三、興打鈴 吳翠守 金俠守

◇同八時三〇分 (平) 라디오드라마『눈보라』『三京-馬邸』脚作 -配役- 一民…李義昌 東秀…馬杜英 長孫…康一秀 玉女…田三女 그의父…崔容植 그의母…金永愛

◇同九時 (大) 演出 平壤美容會 馬完英 피아노獨奏 一、소나타作品五十七 베-토-벤作曲 第一樂章…알레그로 第二樂章…안단테·콘·모토 第三樂章…알레그로 二、로만스作品十二番 마리칸트作曲 吉田敏子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 童話 ◇同六時二五分 (東) 生活改善講座 ◇同七時三〇分 (東) 唱歌 ◇同七時四〇分 (仙) 講演 ◇同八時 (大) 慰問의夕

二十三日(日曜)

◇午後零時五分 名曲鑑賞 (레코-드) 解說 金管

◇同六時 兒童劇『눈오는아츰』 兒童劇研究協會 南基熏作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明倫學院 安寅植

◇同七時三五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나、唱劇調 沈彼中流 金銀子 杖鼓 韓成俊

◇同八時五分 빠이올린獨奏 一、소나타作品二…베-토-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삐-체 第二樂章 안단테·퓨포스트 第三樂章 알레그레토 알레그로 피아치볼 二、로만티노…마르티니作曲 三、로만쓰, 안달루자…사라사-테作曲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春眠曲 二、乾坤歌 李月色 李慶順 金永一 大笒 金根宇 杖鼓 洪志裕 金元福

◇同八時五〇分 舞臺劇 京城府民舘에서 中央舞臺演出 『靑鳥』中 『밤의宮殿』第三幕四場 延鶴年配役 치르치르…朴貞淑 미치르…李白姬 犬…李吉(?) 猫…徐成大 砂糖…太乙民 빵…金英順

第一放送

◇午後一時 (京)이야기 ◇同六時 (東)吹奏樂 ◇同七時三〇分 (東)日曜演藝

◇同八時〇〇分 (一) ◇同八時三〇分 (東京放送)

二十四日(月曜)

◇午前十時三〇分 料理講習 식혜

◇午後零時五分 映畵이야기『저바린연인』 徐相弼 効果 金一成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主婦와家庭生活』 同德女高 宋今璇

◇同六時 하-모니카二重奏 一、行進曲『戰線에서』…보-作曲 二、獨人의合唱…웨버作曲 三、日、獨、伊、愛國行進歌…金城園編曲 가、愛國行進曲(日本) 나、나치스의 노래(獨逸) 다、파시스트의 노래(伊太利) 四、圓舞曲『파우스트』…구노-作曲 五、漁夫의舞…吉本光藏作曲 六、金色의 대장간…미히아엘스作曲 宋一波 金九口

◇同六時一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支那事變』 李晶燮

◇同七時四〇分 『파우리經濟力』 商銀頭取 朴榮喆

◇同八時一〇分 一、사거리 二、중모리 三、경발림 四、朴淵瀑布 金紅桃 金香紅 金三月

◇同八時三五分 古談 一、念佛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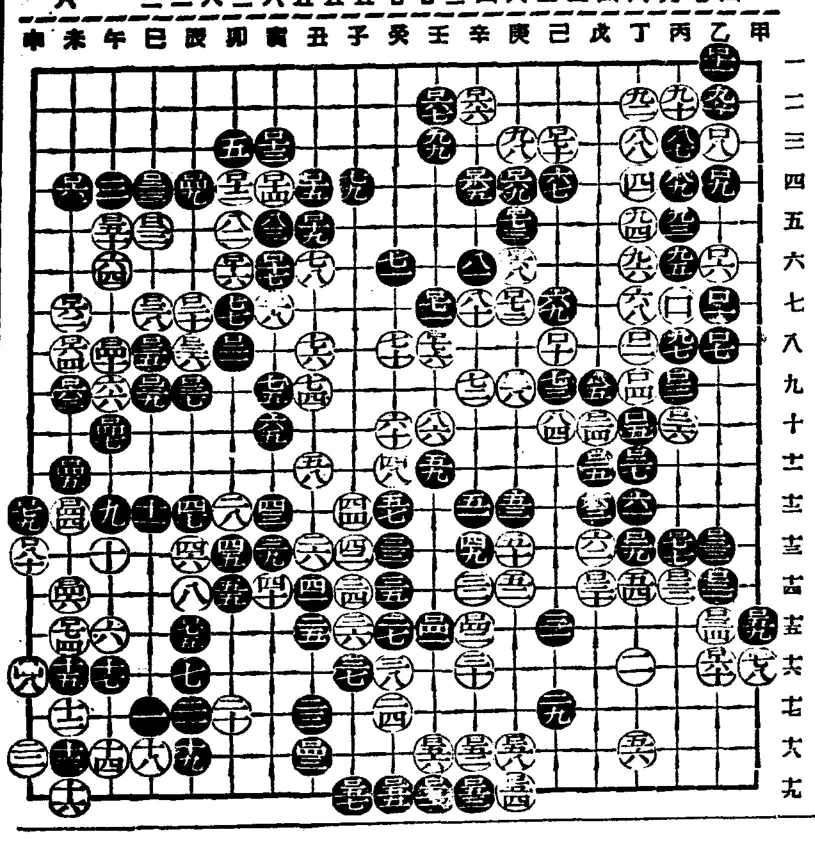
◇同九時五分 俗曲 三、신아위 四、긋거리 細笛 韓成俊 大笒 方龍鉉 奚琴 金德鎭 杖鼓 池龍九

『十字砲火』와 『科學者의길』 市內若草劇場에서 廿四日부터封切

市內若草劇場에서는 오는 廿四日부터 東京發聲映畵會社作品인『十字砲火』라는 戰爭映畵와 와-너-作品인『科學者의길』을封切한다는바『十字砲火』는 今發聲映畵로서 그中에조선말로부르는 자장가도그려잇서매우 興味를 끄으는作品이라고한다 (사진은『十字砲火』의 한場面)

本社獨占 國手爭霸譜 (11)

白 盧史楚 黑 丁奎春



●一六一 未의四 ○一六二 未의七 ●一六三 未의九 ○一六四 未의八 ●一六五 辛의四 ○一六六 辛의二 ●一六七 壬의二 ○一六八 庚의六 ●一六九 庚의四 ○一七〇 己의三 ●一七一 壬의七 ○一七二 庚의七 ●一七三 庚의五 ○一七四 未의十五 ●一七五 辰의十五 ○一七六 壬의八 ●一七七 丙의十三 ○一七八 甲의十六 ●一七九 申의十二 ○一八〇 申의十三

先勢 ●一八一 未의十八

白의積極主義와 黑의守御策對峙 問題의越境을成功하고도 定軌를떠나만드는刼戶

前回에서 말하기를 黑의避刼은 구태여 平地風波를 이르킬必要가업다고해서 安穩하게 局面을 收拾하려는 明哲保身之策이라고하엿지마는 黑의 이러한 謹愼的인 消極主義에 對해서 白도 그냥 越境을하지안코 黑이 刼을내면 한번 決死的인 一戰을 交합것이고 그러치아니하면 黑의先着에 應手나할일이지 區區하게 越境逃走를 倉皇히 하지는안켓다는것이 어데까지나 白은 挑戰的인 積極主義的色彩를 버리지안흔채로 이때까지 對峙해왓다。그럼으로 黑一六一이 未의四로가니 白은 一六二를 未의七로가서 우선 中央의 完戶를내여 陣容을確保함으로 黑은 一六三을 未의九로 노하 白으로하여금 一六四를 未의八로 應하게하니 대개 計戶의 段階에서는先着의機會를어더 敵으로하여금 自充消耗케하는 消耗戰法은 古例에잇는일이다 그다음 黑이 一六五를 辛의 四로 간것은 아모래도 白九八 庚의三이侵入의機會를 엿보고잇슴으로 이映觸의 觸手를 막기위함이니 事態가 이러케되고보면 白도 苟安을직혀 언제까지나 機會가 도라오기만 기두르고잇슬수는업슴으로 인제는 틈잇는대로 敵陣을 衝擊하려고 一六六을 辛의二로 벌리니 黑은一六七을 壬의二로 막엇다 그다음 白一六八 庚의六으로부터 白一七二 庚의七까지는 彼此 當然한 手順이나 黑一七三 庚의五는 한번白의心中을 떠보는것이다。이때까지 이地點에서 서로 一進一退한 남어지이니까 黑이 庚의五로 나오면 白은 己의六으로가서 黑六十九를 捕獲하는가 안하는가 한번 試驗삼아 노핫든것이다。그러나 白은 脫兎와 가티 다러나 인제는 一七四를 未의十五로 가서 越境하엿다。그러는 同時에 先着의 機會까지 잡게되여 黑이 一七五를 辰의十五로 應하게한 뒤 一七六을 壬의八로가서自陣을 確保하엿다。그러니黑은 一七七을 丙의 十三으로가서 亦是 敵의侵入을 막는것은彼此에아직도 自障에 虛隙이만흐니 攻略보담 守禦가 急함으로 先着權授受가 빨리되는것이다。그러니 白은一七八을 甲의一六으로 노핫는데 지금 形便으로보아 이것은 좀凡庸한듯한感이 업지아니하나 黑一七九가 申의十二로 올때昇平의時代가트면 當然히未의十三으로 이를것이나 일부로一八〇을 申의十三으로 벌려刼戶를만드는것은 아직도 白이 더만히 挑戰的인때문이다。여기에對해서 黑은 隱忍自重만 할것인가 그러치아니하면 한번 反擊을할것인가? 注目을 끄으는채로 回를 넘기게되엿다 (赤松子觀戰記)

中央舞臺第五回公演

青鳥 (메텔링크作)

時日 一月廿一日、廿二日、廿三日午後七時
場所 太平通府民舘大講堂
入場料 五十錢均一 (但本報讀者에限하야三十錢으로)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中央舞臺公演 入場料 五十錢을三十錢으로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場所 府民舘大講堂
時日 自一月二十一日至二十三日 午後七時
一人一枚限

中篇小說 女人命令【27】

李善熙 作 崔根培 畵

處女出帆(一)

숙채는 아츰 여섯시 아직전등불이 채나가기전에 일어나서 머리마제 노흔 양말부터 집어신엇다。

『오늘은 취직하러가는 날이다』

어째 취직이라는 새로운 생활과정을 당하고보매 누구나그러한것과가치 딸요이상의 흥분으로해서 정작해야할 일은 손에 잡히지안는다。 마치 처음항해(航海)를 하는 젊은 선장과가티………。

숙채는 위선 다리미에 불을 담아가지고 치마주름을 다리고 속수건까지 하나 다려노핫다。 그리고 세수를하고 머리를빗고 조반을 먹고 이러한 일이 끗난다음 아랫방 색씨가와다。

『인제 다채리섯서요? 아이 이뿌네 이저고리감이 머애요?』

숙채는 눈을가슴치레해가지고 우섯다

『그럼 잠간만 기서요 내변또를 가지고 나오께』

명자는―이색씨 일홈이 명자―다―제가 잇는 벽아궤 방으로 가드니 자주빗파 주황을 석거 문의를 노흔 째보재기에 변또를 곱게 싸서 들고 몃번이나 도나드는 문설주에 달아매노흔 거울을 드려다보고는 코스등에 분을 차근차근 눌러도보고 색기 손가락 끄트로 입술에 바른 연지를 다시 문지르기도하고 더구나 량쪽 눈섭이 고추 서도록 눈을 크게 부릅뜨고한참이나 드려다 보는데 이것은 명자가 눈이 작은것을 몹씨한하야 거울을 볼때마다 저도모르게 눈을 커다라케 떠보는버릇이다。

그가 한참이나 모양을 본담에야 숙채와가티 가즈런히 서서 문간으로 나왓다。

『그래 정말 사장이 오라고 그랫서?』

『아주 사장은 아니고 전무선생님이 오라고 햇서요。』

『내 이려서는 누굴갓다 주엇소? 그것도 전무를 갓다주는가?』

『아니 이려서는 저―관매주임이라고잇죠。그일갓다줫지요。그리고 꼭 서달라고 내가 몃번이나 조르걸요』

숙채는 인제 열여덟살박게되지안는 얄님도록 모양내기를조와하는 명자가 이처럼 자기일에 열심인것을 볼때 마음으로 고맙지안흘수가업섯다。

『그래 그관매주임이라는이가내 이력서를 보아?』

『네― 보드니만전문학교까지다닌 사람이 웨 점원노릇을하느냐고 그리면서……호호』

『그리면서 왜? 머 우수운말을 해?』

『그인 입버릇이 본래그래요』

『입버릇이 어떠케 무에라구그랫는지 알어야 나도 정신을 채리지』

명자는 괘한말을 끄내다고후회하는 빗이엿스나 또대수롭지도안케 말햇다。

『언니 이려서에 붓친 사진을 보고 얼굴이 잘생겻다고 재며누리를 삼앗스면 조켓다고 하겟죠。그건 본대 그런 망칙스런수작을 썩잘하니까요。』

숙채는 이처럼 자기를가지고 합부로 말을하는것을 처음으로 들어서 불쾌햇다 그러나 그만치 또 새로운 지방을 려행하는 사람처럼 호기심도 들엇다。

두처녀는 아츰 거리를 것노라니 투명치못한 햇빗이 유리창들우에 누러케 번뜩거린다。 벌서 상점마다 점원들이 총채를들고『쇼―윈도』며 물건우를 툭툭 건드려 몬지를 턴다

『그리다가 안된다고 퇴ㅅ자를 마즈며 어찐다?』

숙채는 무엇을 약간 생각하는듯 눈을 째긋하드니 다시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정리하는 모양이다。

이윽고 백화점아페 이르럿다 억센 용수철을받은 유리문을안으로 잔뜩 밀고 들어서니 고객의손이 아직 닥키전 물건들은 털하나일지안코 정돈되고잇고 햇빗이업는 헤너른 실내엔 아츰 서슬이 아직도푸르뎅뎅하게 차잇서 숙채는 어쩐지 그러케 정다웁을 느끼지못한다

『사무실로 가야죠』

숙채는 암팔도안… 돌중중대를 밟… 끄테 선을친 쇠ㅅ소각이구두뒤축에 다을때마다『잘칵잘그랑』하는 소리가 이상스러게 숙채의 발바닥을 띡띡하게 만드는것갓다

感冒에對處해서 꼭準備하시기를!

麻痺性이强한鎭咳藥은頭痛、嘔吐를이르키기쉬워서老人과小兒에는 맛지안습니다 ベルマン은 鎭咳、祛痰의效力이優秀할뿐아니라中毒性이絶無해서、心臟保護의特性잇는安全理想의新劑입니다

기침은難症의因! 感氣기침、輕한發作도허수히말고곳ベルマン을써주십시요

價 五十錢・一圓 二圓・三十錢 全國藥店에잇슴

發賣元 丹平商會藥房 大阪・東京

安心할수잇는 小兒專門의解熱藥

オイン은 特히小兒의體質에適應하야、胃腸에조곰도副作用이업는解熱劑로서 少量이므로幼兒에도먹이기쉽고 安全히슬슬熱을내립니다 冬節家庭에必須의愛兒守護藥입니다 期於히備置해주십시요

主效 小兒의감기、열、류행감기、홍역、肺炎、百日咳、其他熱에

小兒들에게……… 普通잇는大人用의解熱藥은너무强해서中毒危險이잇습니다。반다시オイン을먹여주십시요。 藥價二十錢부터一圓 各地藥店에잇슴

發賣元 丹平商會

肌アレに 살결거치름에

구린싱의三重作用이大評判!

(一) 거치른살결을먼저淸掃함 더러워진 皮膚에 거치는防止藥을 발러도 效果는 적다──고하는것이 最近의 化粧科學으로서 明白이 되엿스나 明色구린싱은 조곰 문질러발르고 닥가내면 먼저皮膚를 完全히 淸掃합니다

(二) 同時에獨特한美容作用 과학적 獨特한 美容成分을 皮膚의 深部에 가장 效果的으로 주는것입니다 살결거치름에對한 이러한 合理的인 綜合作用은 明色구린싱 獨特한것입니다

(三) 그대로곳化粧下가된다 明色구린싱으로 洗顔하면 化粧下업시도아주 어여쁜 化粧이됩니다

三重作用으로 거칠지안는美肌를만듬!

▲구린싱의世界的流行 歐米에서의 구린싱의流行은宏壯한것으로서 從來의 모-든洗顔料는 모조리 時代에뒤진것이되고 最近의 統計에依하여도 구린싱의 使用額은 모든 化粧品中의 首位를 點하고잇는까닭에歐米婦人의美는 一層더이뻐젓다고까지합니다

普通크림의 二三倍는利得

定價 一圓・八十錢・六十五錢 一圓卅錢

明色クリシンクリーム 구린싱크림

アブラ顔 기름끼얼굴인 분도★인제는 걱정업다!

아수토린젱의 훌륭한美容作用

그것은 웨? 기름끼얼굴이분은 脂肪分이 너무 만히 피는까닭에 白粉이 곱게안받고 化粧도 곳 버서지지마는 化粧前에(粉化粧時는 化粧下크림을 발르기前에) 明色아수토린젱을 一二三滴발르면 獨特한 收斂作用으로 皮脂腺을 緊縮식히고 脂肪分의 分泌을 根本的으로 調節하는故로 아무리기름끼얼굴이라도 白粉이 마음대로 어여쁘게발라지고 化粧도 異常하리만큼 오래감니다 歐米婦人은 化粧前에반다시 新强力化粧水아수토린젱을씀니다

▲기름끼얼굴이낫는다! 朝夕으로 두번쯤 明色아수토린젱을 常用하면 기름끼얼굴이 漸次낫고 얼굴이 눈에띄일만치 젊게됩니다

겨우二三滴으로 化粧한맵시와지탱이全然달러집니다

歐米婦人은化粧前에반다시아수토린젱을使用함!

定價 一瓶 四十五錢

明色アストリンゼン 아수토린젱

中部版

期限延長、學校增設 質的指導에轉換
京畿道初等學校長會議에서 난상討議한結果 普校卒業生指導方針變更

지난십일부터 사흘동안 경성부학교강당에서열린 경기도내초등학교장회의의 중대한협의사항인 졸업생지도에 관한건은 종래 지도생의량(量)에 치중하든지도방침을 질적방면(質的方面)으로 전환시켜 소기의목적을 철저히달성하기로되엿다

보통학교를졸업하고 농촌에남어잇서 농사에종사하는 청년의 지도시설은 소화이년 경기도에서졸업생지도학교(卒業生指導學校)를창설하야 농촌진흥운동자양성을목적한것이 처음으로 그후이 시설은농촌운동(農村運動)이전조선에 실시됨을따라 전조선적으로 확대된것으로 지금경기도내에는 팔개소학교에 이천륙십구명의 지도생이잇스며 여기에대하야 도에서는 정규의졸업생지도교로 지정한뒤 오년간은 매교 원씩을 보조하는데그액이매년만원이상에 달하고잇는현상이다

십삼년도부터는 지도방침을전기와가티 질적방면으로전환식히는결과 종래삼개년이든지도기간을오개년으로 연장하기로 되엿스며 이기간을 마치자는 수료생(修了生)으로 농사공려회(農事共勵會)에 참가케하야 중견청년으로농촌진흥을 위하야활동케하라는것이다 그리고금년도에도 도내에 약십교의지도학교 증설을 보게될것이다

洗浦修民訓練所에 第一回로百名入所

【鐵原】 이미대정에 의하야작춘부터 북선개척이민을 시행하야 강원도로서도 철원의 이민을 작년에내기에 식엿스며 금년을 에는 이백칠십호를 이식키로되엿다양은 기보한사실이어니와 금번부터는 이민의안전을 기하기 위하야 강원도세포민수련소(洗浦修民訓練所)에서 이민중심인물(移民中心人物)을훈련케되어 이달 이십일부터시작되엿는데 전조선에서 일백명이라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번에 입소한 인원이 다음과갓다

鐵川三名 平康二名 金化四名

開城府內八學校의 優等生에奬學金
京畿道知事로부터

【開城】 오는이십일일 금상폐하어성훈기념일을 당하야 경기도지사로부터 개성부내 팔개소초등교내에 성적우량한 아동을추천해서 장학금을 시여키로되엿다는데 표창받을 아동은다음과갓다한다

開城滿月公普校=金鍾水 朴浩鎭 金在湖
開城元町公普校=李榮 李鏞錫 金甫任
開城高麗公普校=王福玉 張泰孫
松都普校=洪寶安
中京普校=河□□
好壽敦女子普校=□□□
松都高等小學校=加藤□□

仁川船舶激增

【仁川】 작년일년중 조선각연안해항을 출입한기선중 명령항로이외의 기선수가 금년에드러서 척수가 이십이척 증가하야 이천로백륙십톤이나 된다하여 작년의 삼월에 비하면 선척이천 톤수는 십일만톤 선이백이톤이 증가를보이엿다한다

便所업는京城人 文化都市로서大羞恥
道와府의協力으로整備促進

경기도위생과의 조사집게에의하면 구시내에서 사람사는집이면서 변소설비가 전연업는집이 배칠십여호 잇서도 완전치못한집이 팔백팔십구호이며 신시내에는 업는집이구백사십사호 저전한 팔시변소가 이만사천사백륙십오호 변소라는 명색만 잇고 분뇨통업는것이 오백사십이호 불완전한변소가 이만구백삼호라는 엄청난수짜로 경성은마치『변소업는도시』이다 이것은 도시위생에 중대한 나쁜영향을 주는것으로 경기도에서는 부와 협의하야 오는사월까지에 실력이잇는자에게는 강제적으로 곳 변소를 만들도록하고 빈한한집에는 상당한보조까지주어 될수잇는대로 속히 변소정비를하도록 도에서 부에다 만흔보조를 주기로되엿다

仁川도傳染病減少

【仁川】 악질의전염병으로서의 부민의위생을 도하기위하야 부청위생계는 인천경찰서와협력하야 전염병방지 근절에부단의로력을하야 근년에와서는 연년감소를보이는중인데 작년중의 발병자수는 이백이십오명밧게아니된다하며 그발생별은아래와갓다한다

▲赤痢一二三▲腸窒扶斯三二▲빠라지부스二▲發疹지부스一八▲猩紅熱一六▲디푸테리아四〇▲流行性腦炎四▲合計二二五

中央市場靑果部는 民營會社에委託
京城府直營될水産市場만 鮮魚部로編入할方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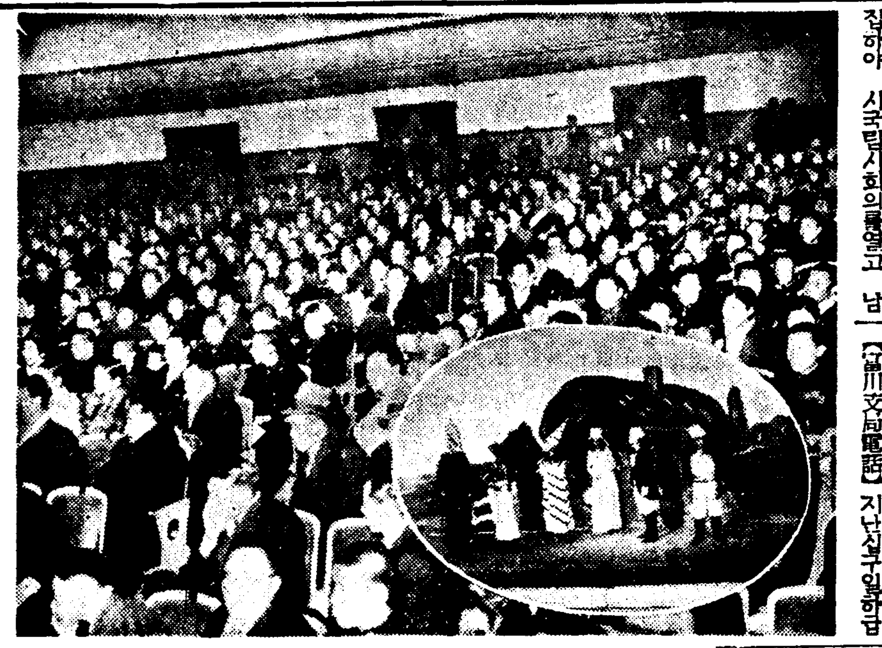
경성부수산시장의 경성부직영문제가 이십일일의 경성부회에 상정되여 직영으로 이것이 가결확정될것은 이미 시간문제에 속한것은 기보한바어니와 이수산시장의 부직영은 오는사월일일부터 시작될것으로 이와함께 그동안 기채인가가 나지안헛음으로 일시 실현이 못되고 잇던 중앙사매시장(中央卸賣市場) 건설문제가 금년에는 또 다시 구체화하야 경성부에서는 신년도예산에 역시륙십오만원건설비를계상하게되여 신년도벽두부터 그공사 착수하게 될터인데 이러케되면 경성부 직영의 수산시장이 이중앙사매시장에 그최초계획의 선어부(鮮魚部)로 들어가게되는바 이에따라서 중앙사매시장의 청과부(靑果部)도역시 경성부직영으로 하느냐는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되는것이나 이것은 경성부로서는 직영할뜻이업고 결국현재남대문의중앙물산회사(中央物産)를 주체로하야 생기는 새회사에 위탁경영시키게되리라고한다

府尹郡守署長校長에 總督訓示를傳達
京畿道甘蔗知事로부터

시국의장기성(長期性) 인식을 철저강화하기위하야 이십이일총독부에 소집된 긴급지사회의(緊急道知事會議)에 출석하엿든 감자(甘蔗)경기도지사는 동일오후두시부터 도청회의실에서 부윤 군수 서장 중등학교장들소집하야 시국담회의를열고 남총독의훈시를 전달하야 각관내 일반에게 주지시키도록 명령한바잇섯다

學友를打殺한 宋少年를釋放

【富川支局電話】 지난십일오후합 … 된원인은 지난해의교소지역에 송군이 봉교사이년생 김영동(金一몽)(六)과 사소한언쟁끄테서 … 되여집까지지한일이 엇는데 지난십팔일 김소년이 그가해에여누어엇다든지 … 가 송군이부친 김군을 경성의 전대원(醫院)에 입원시켯든바 이십일밤에 고만죽고말엇다 이보다 하루앞서서 실구일인천서에서 송소년을 인치하야다가 취조하는일방 의전병원에서 죽은김소년은 이십일일 해부한결과 뇌충중(腦衝症)으로 죽은것이오 구타가 원인이되어 죽은것이 아니엇섬으로 송군은곳 석방되엿다고한다



事業은江原道에서 納稅는京畿道에
道路修繕賦役에 시달린江原道民 京春鐵道에不平漸高

【春川】 강원도(江原道)교통운수사업은 그간 각종다양으로 경영자(經營者)가 대립하야 잇섯슨바 강원도민의 요망이든 경춘철도주식회사(京城鐵道株式會社)의 탄생을보게되자 이에강원도내의 승객선로(乘客線路)는물론 화물자선로(貨物車線路)까지 매수하야 단연강원도교통운수계(交通運輸界)에왕자로 군림케되엿는데 이에 당면한 중대문제가발생하엿스니 즉작년십월 패게가가장 강원도당국과는 이러타는 상의 조차업고 본사(本社)가경성(京城)에잇다는단순한 문제로 본사(本社)와경기도(京畿道)와철도국(鐵道局)이협의하야 사용하는자동차(自動車)의차적(車籍)은 대부분을 경기도(京畿道)에두게되여 이에직접관계되는 차량세(車輛稅)를전부경기도에 납부케되엿는바 강원도당국으로서도상당이 대책을강구중인데 일반도민(道民)으로하야가빠지도록 길돕다가노면·이로다니며 버리롤하여가고 차량세(車輛稅)는 우리도에 내지안코 경기도(京畿道)에 바친다고 비난성이 자자하며 회사에대한 원한성이 불평부하니 경춘철도주식회사 (京春鐵道株式會社)로서도 기피고려하야 후한(後恨)이업도록 적당한 처리가 필요하다고한다

一割五分의減少
傳染病의發生과死亡 京城이依然最高位를占領

조선의 십창부 경기도내에서 작년일년동안에 얼마나한사람이 전염병에걸려죽엇스며 또어떤병이 제일만헛는가를 경기도위생과의집계에의하야보면 발생총수는 삼천오십이명중에 죽은사람이 오백세명으로 재작년의발생수 삼천삼백팔십사명 사망수오백팔십칠명에비하야 각각일할 일할오분의감소률을보이고잇스며 여덜가지전염병중 발생수에잇서서 제일만흔것이 적리(赤痢)의 일천일백삼십이건이며 다음이 디푸테리아, 장질부사의 순서이며 사망순으로는 적리의 일백칠십사명이 최고이며 디푸테리아, 장질부사의차례로 여름에흔한 소화기계(消化器系)병이 얼마나위험한것이며 또지금류행하고잇는어린이의병디푸테리아가 얼마나무서운가를알수잇다 이것을 다시부군별로보면 역시경성이 명예스럽지는못하나마 최고위로 발생수일천팔백이십칠명에 죽은사람이 이백칠십구명으로 이곳에특이한것은 디푸테리아의 사망수가 팔십팔명으로 제일만코 더욱십이월중 전염병사망수 삼십팔명중에 이병으로 죽은자가 삼분지일을차지하고잇다는것은 어린이를둔일반가정의 특히주의할바이다

學校擴充決議
伊川山內面民이

【伊川】 강원도이천군 산내면(伊川郡山內面)에서는 지난십칠일오전십일시부터 오후다섯시까지장시간에亘하야 면장최석익(崔錫翊)씨사회로 면민대회를 개최하고현재산내공보교(山內公普校)의 학년년장과 룡포리간이학교 (龍浦里簡易學校)의 보교승격운동에대한 기성회를 조직하고 위선산내공보교의 학년년장에대한 소요경비 사천원은 오는삼월십오일까지 전부징수할것과 룡포간이학교를 산내제이보교로 승격운동에대한 소요경비는 금후삼년간매년일천원씩적립하야 삼년후이면 실현될수잇도록 면민일동이 결의하엿다는데 기성회역원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會長 崔錫翊 ▲副會長 李東鏞 ▲評議員 李東彬外九名 ▲顧問 山內各官公署長

中央舞臺의"靑鳥" 첫날부터超滿員
廿三日까지府民館에서公演 本報讀者에는割引

장안의 이야기꺼리로 연극팬의 기대가 크던 본사의예보후원의 중앙무대공연은 지난이십일일밤일곱시 부터 부민관대강당에서 첫막의 막을 열엇다 마친 대한(大寒)날밤이라 날세가 몹시 추웟음에도 불구하고 관중은 물밀듯—정각전부터 강당앞부에는 장사의열을 이루엇고 소년의아름다운 꿈이야기가 버려진 화상의무대는 겨울밤이 기퍼가는줄도 모르게 만장을도취경에 끌어너헛다 오래동안빈틈업는 통제미테서 연습한보람으로 중앙무대가 차린된후 처음이라고 할만치 연극은 성공하얏다 전부 오막구창의 길다란 무대가 파하기는 열한시사십분이엿스며 금이십이일 낫한시부터는 시내 각여학교의 단체입장으로 이또한 초만원의성황을 이루엇는데 이십삼일까지 주야로 개연하려니다 (사진은 초만원의 만장과 원내는 무대의 한장면)

國旗업는四萬戶
京畿道에서備付嚴命

작년말 조사에의하면 경성을제외한 경기도내 호수의 약일할인 삼만륙천칠백호에는 국기가 업섯스므로 얼마전에 이것을비부케하엿다

依託바든農牛를 托送途中에賣喫

【永登浦】 본적경북상주군상주읍성동리 (尙州郡尙州邑城東里)두고주소부정한 황덕명(黃德明)(三〇)은지난달일일오전구시경지론부터 경기도 양주군진건면오남리상패사십육번지(楊州郡眞乾面梧南里)우덕근(禹德根)으로부터 소두마리를 사백오십원짜리를 우덕근의집까지 보내달라는부탁을바든것을기회로금월팔일광주군실촌면지암리(廣州郡實村面池岩里)박에이르러 천성흥(千成興)에게 소두마리중한마리를 이백칠십원에 팔어바린후 나머지한필은 전기지암리(池岩里)에 연두재해 즉시 경성부면으로 도주하야 각처로방랑하며 도라다니며 홍국중에 영등포서원이수상히 생각하고 취조한결과 전기사실을 자백하엿는바 여죄나 업는가하야 계속취조이다

長篇小說 林巨正 【32】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소굴 (一)

청석골 적당이 송도부 부근에서 살인하얏이 기왕에도 종종잇섯스나 벡성이 적당의 보복을 두려워하야 관리에게 고발하지못하고 혹 관리가 들어알고서도 불문에부치고 더면두어서 뒤가문두 무사태평하엿섯다 그러나 송악산 큰절 살인은 치명소(致命所)가 송도부내요 초상인(初狀人)이 이아아전(衙前)이요 원고인(元告人)이 죽은 송도사·송도부수가 치히 초검(初檢)한후 장단부사(長湍府使)에게 복검(覆檢)을 청첩(請牒)하고 송도부에서 포도청(捕盜廳)에 보장(報狀)할뿐아니라 송도부수가 상계 장계(狀啓)를 내까지하얏다

조정에서 토포사(討捕使)를 내보내서 청석골 적당을 토벌(討伐)한다는 소문이 송도부근에 자자하얏다

꺽정이가 칼에 피 한방울을 무치지안코 궁지(窮地)에빠진 안파식구를 구하야가지고 돌어간뒤에 그전 악박하든 허생원을 다시 다려다 두고 백손어머니와 황천왕동이 안해를 치료시키는데 백손어머니는 파연 이십년 단산끄테 무섭스러운 아이가잇서서 안태(安胎)회약 면쳐먹고 바로 기동하게되엇고 황천왕동이안해는 속으로 골병이들어서 침을 여러대 맛고 약을 여러첩 먹엇건만 뒷가충입도 개신개신 겨우하얏다 허생원이 약을 서너제만 더쓰면 쾌히 회복이 될터인데 약에 훈치안은 당재(唐材)가 멧가지 든다고하야 황천왕동이가 꺽정이에게 말하고 약제 구하러 서울을 올라왓다 황천왕동이는한천지부자에게 부탁하야 꼿구해가지고 당일로 되지펴나려가라고 생각한것이 남소문안 한첨지집에를 와서보니 늙은첨지는 중풍으로 앓어누어서 사람도 잘몰라보고 젊은 한온이는 저의아버지 병구원도아니하고 풀아다니는지 어디 나가고 집에업서서 서사일보는사람에게외재려온것을 주고 어더달라고부탁하니 서사의말이 주인의말업시 어더드려도 조켓지만 젊은주인이 일직 들어올터이니 만나서 탁하라고하야 한온이를 어오기를 오래 기다리고 또한온이오뒤에 구리게 약국에 내보낸사람이 벽재(僻材)를 구하아오느라고 오래 지체하야 진해가 쥐꼬리만큼 남엇는데다가 해질녁에 어디를 가다느냐고한은이가 부득이서 황천왕동이서 날씨 록기되엇다 저녁밥을 먹고 조용한틈에 한온이가 송악산에서 중파난것을 자세히 못고자하야 황천왕동이가 일장이야기한후 한온이에게 조정소식을 물어보앗다 송도부사는 아를 가르치지못한 허물로 파직당하게된것을 령부사(領府事)로 원한이 지금 파직시키면 국가외수치를 더한다고 말하야 직 중지되엇다는말이잇는데 그것은 사실인 모양이고 유수한 무장(武將)으로 토포사를 내서 청석골을 소탕(掃蕩)시키자고정부(政府)에서 공논이 낫다면이 잇스나 그것은 전혀허탄한 말이고한온이가 말하야 주엇다 한온이는 저의 아버지를 보러가고황천왕동이는 의관을 벗고 누엇다 황천왕동이가 바로 잠이들어서 곤히 자는중에

『이사람 일어나게』

한온이가 와서 깨웟다

『왜 일어나라나』

『술먹으로 가세』

『단야에 무슨 술이야 나는 잘라네』

『오래간만에 만나서 술한잔 가치안먹구 작별하단말인가 어서어서 일어나게』

황천왕동이가 일어안젓다

『어데루 가잔말인가』

『우리 자근마누라가 술상을 차려노쿠 기다리네』

『그술상을 갓다가 여기서 먹세』

『왜 내첩의집은 더러워서 못가겟나』

『술업는소리 고만두구 이리가저오라게』

『글세 왜 이리 가저오란말이야』

『버선을 옷을 다시 주서입기귀찬켓든』

『꼭찌어질 의판 다 고만두구 그대로가세』

『어둘 상투바람으로 가잔말이야』

한온이가 황천왕동이를 잡아일으켜세우며 입을귀에 다이고

『도둑놈의 주제에 의관은 다 무어냐』

하고 우스니 황천왕동이도 지지안코

『너는?』

하고 마주 우섯다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平和堂 一劑十円

滴血排毒强心特効藥 海草精 適應症 ホルモン医化学研究所

優良講義錄推奬
中學講義 見本無代進呈 東京市牛込區台町八 大日本通信中學校
巡查受驗 藥種商受驗 鐵道志願 自動車受驗 東京市牛込區台町八 日本警察敎育會 日本藥業敎育會 日本鐵道敎育會 日本自動車敎育會

武田發賣品
月經 女性ホルモン
月經不順、月經寡少
月經過多、月經痛、神經衰弱、憂鬱症、頭痛、逆上、耳鳴、心悸亢進、腰部·四肢冷感等
本劑는女性特有의機能을發現하는卵胞호르몬의分泌不足減退等에隨伴하는上記諸症에對하야 호르몬作用을發揮해서 衰退한卵巢其他의諸臟器를賦活하고 新陳代謝를旺盛케하고 血色을佳良케하고 老衰現狀을豫防恢復하야 健康을增進함
結晶性卵胞호르몬
オバホルモン 오바호르몬
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小西新兵衛商店 帝國社臟器藥研究所

靑年團 防護團 國防團服 銃後の護り 國防色ゲートル卷
靑年訓練靴 最高級防水專賣特許底 大量製産直賣
製造發賣元 東西商事社 名古屋市西區傳馬町

學生募集 滿洲自動車學校 每月一日新學期開始 學則送呈 奉天商埠地十一緯路五五

藥の効かぬ難病者へ! 肺結核·肋膜炎·喘息·不眠症·高血壓·中風·
室內의空氣를淨化殺菌하고 結核菌等의傳染을防止하고 諸病을治療하야 頭腦를明快케함 藥品不要
完全 オゾン發生機
"消畔日報"에서보앗다고 記入하고 葉書로申込하면 オゾン과難病征服의道를가르킨 美本二冊을無料送呈
大阪市 日本理化學工業株式會社

腦의疲勞 ノーシン 明快

平壤府水玉里(電話一〇六九番) 水玉産婦人科 院長 医學士 李麟杰 物療科增設 超短波科 産室完備 八院隨意

吉州支局 電話一一九番

性器强大 淸導補腎丸 滿洲國安東縣

日本高等鐵道學校 滿洲 奉天

商標 고추가루 金千壽商店製粉部 釜山府草梁町

十子砲火 / 大朝母ニュース / 科學者の道 若劇
東洋劇場

腦의疲勞 ノーシン 明快

朝鮮米實收高發表
二千六百七十九萬石
比二回豫想四十五萬六千石增收
比前年實收七百三十八萬石激增

未曾有超大豊

昭和十二年米實收高를調査하건대 其作付反別은水稻粳米百五十七萬六千百八十五町九反步 糯米二萬八千六百三十三町六反步、陸稻粳米二萬六千二百八十町一反步 糯米八千十七町二反步 合計百六十三萬九千百十六町八反步로 此를 前年作付反別百六十萬一千三百三十四町六反步에 比하면 三萬七千七百八十二町二反步(二分四厘)의 增加量示하고 收穫高는 水稻粳米二千六百三萬六百六十九石 糯米四十二萬三千二百六十五石 陸稻粳米二十五萬七百七十二石 糯米九萬二千二百四十四石 合計 二千六百七十九萬六千九百五十石으로서 此를第二回豫想收穫高二千六百三十四萬六百九十六石에 比하면 四十五萬六千二百五十四石(一分七厘)의 增加, 前年實收高一千九百四十一萬七百六十三石에 比하면 七百三十八萬六千百八十七石(三割八分一厘)의 增加이다 參考키爲하야 最近五個年間의 作付反別及收穫高를보면 左와如하다

	作付反別(町)	收穫高(石)
昭和七年	一、六四三、四四九、〇	一六、三四五、八二五
昭和八年	一、六六七、四四六、九	一八、一九二、七二〇
昭和九年	一、六七二、九九九、一	一六、七一七、二三八
昭和十年	一、六六四、三二九、三	一七、八八四、六六九
昭和十一年	一、六〇一、三三四、六	一九、四一〇、七六三
昭和十二年	一、六三九、一一六、八	二六、七九六、九五〇
同第一回豫想收穫高		二四、七三三、〇四四
同第二回豫想收穫高		二六、三四〇、六九六

備考 昭和十一年以降을 新調査方法에依한것으로서 作付反別은 畦畔面積을除하고 實際作付한 面積으로함

昭和十二年米實收高와第二回豫想收穫高及前年實收高의比較

道別	收穫高(石)	比第二回豫想收穫高增減	比前年實收高增減
京畿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二六、七九六、九五〇	四五六、二五四	七、三八六、一八七

一段當收穫 一石六斗三升五合
減收豫測背馳

昭和十二年朝鮮米實收高는 二十二日에 發表되엿는데 第二回豫想收穫高二千六百三十四萬六百九十六石에 比하야 一分七厘(四十五萬六千二百五十四石)의 增加를示하고 二千六百七十九萬六千九百五十石으로 新記錄을만들엇는데 第二回豫想이 未曾有의收穫高이엿때문에 幾分過大豫想의危險이잇는것과 收穫時의 南朝鮮地方의 降雨等理由로 實收高는 第二回豫想보다는 多少減少되리라는 一般豫測과는 完全히背馳되엇다 이것은 十二年度作況이 如何히未曾有의 豐作이엇던가를 示하는것으로 反當收穫은 一石六斗三升五合弱이되고 例年의籾摺率百五十斤에 對하야 十二年度는 百三十斤程度로보인다

濟州島甘藷로 無水酒精會社
資本金五百萬圓程度

戰時體制下의 燃料政策確立은 緊急重要性을加하야 液體燃料로서의 無水酒精을揮發油의 混用品으로하야 그國內增產은 關係方面으로부터 刻下의急務로되여있는 情勢에鑑하야 總督府에서는 民間燒酎業者의 協力을어더 燃料國策과 濟州島開發政策上으로부터 濟州島酒精은 朝鮮內에濟州島의 甘藷를原料로하는 無水酒精會社를 設立하기로 方針을 決定하고 二十二日 朝鮮燒酎聯盟代表와釀造局、財務局、農林局 關係者가 總督府에參集、最後的 協議를한바있섯다 그리고 右無水酒精會社計劃의 輪廓은 大體如左한것이다

一、濟州島開發目的으로서 三千町步에 甘藷八萬貫을 栽培하고 이에對하야 國庫補助를與하야 燒酎와酒精原料로함

二、右를原料로하야 無水酒精二萬石을製造함

三、이를 다시脫水하야 九十九%以上의 無水酒精을精製함

四、右無水酒精會社는 資本金을 五百萬圓程度로하야 建設、設備에 먼저百五十萬圓을投資함

五、右會社의出資는 燒酎業者에 配當함

그리고 甘藷를原料로하는 無水酒精製造는 工業的으로成立하는 試驗이 完了하엿스나 甘藷栽培를平均으로 自給할수잇슬지 에 問題가잇다 따라工場地가는 것도 原料關係로부터 濟州島以外의 釜山 麗水 木浦 群山等의 어느곳에든이有利하다는論도 잇서 이點은 未定이못하다

米移出또增加
累計三百五十萬石
比前年同期百萬石增加

中旬米移出高는 三十七萬八千五十五石으로比前年同期 十一萬八百六十七石增 十一月以降累計는 三百五十三萬二百四十一石으로 比前年同期 百四十萬八千五百二十一石의激增을 示하얏다

粟輸入六萬二千石減

粟輸入은 中旬이二萬三千四百二十九石으로 比前年同期 九千八百五十五石의 減少이오 累計는 八萬二千百二十二石으로 比前年同期 六萬二千百五十二石의 激減이엇다

亞鉛鑛業創立

東拓에서는 申請中인 朝鮮亞鉛鑛業(資本金百萬圓)은 總督府의資金調整에 依한認可가 二十日付로써 設令되엇슴으로 二十二日에 拂込를 完了하고 二月五日京城東拓 朝鮮支社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키로 되엇다 同社는 百萬圓全額拂込으로서 現物出資六十二萬圓 現金出資三十八萬圓이오 江原道의 女美山鉛鑛의 開發을 計劃하는것으로 今秋까지 探鑛을 繼續하고本格的探鑛은 明年以降이라한다는데 鑛量은 一萬五千톤을 豫想하다 鉛의 我國內의 需給은 約百萬톤인데 三分一이 自給되는모양으로 同社의 本格的探鑛은 輸入防遏에잇다한다

十二年米實收高道別表

一、作付反別

道別	水稻 粳米	水稻 糯米	水稻 計	陸稻 粳米	陸稻 糯米	陸稻 計	合計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收穫高

道別	水稻 粳米	水稻 糯米	水稻 計	陸稻 粳米	陸稻 糯米	陸稻 計	合計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朝鮮耕地賣買價格 (一)

純收益
가、百坪當純收益

(表 [illegible])

나、前回調査와比較 百坪當純收益累年比較

年度	畓 上 實數	指數	中 實數	指數	下 實數	指數
昭和三年	[illegible]	一〇〇	[illegible]	一〇〇	[illegible]	一〇〇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純收益을 各品等畓田에 對하야 比較하면 大體南鮮地方이 고 中鮮地方은 그다음이오 北鮮地方이 最劣하다

(다)地方別比較

地方	畓 上(圓)	畓 中(圓)	畓 下(圓)	田 上(圓)	田 中(圓)	田 下(圓)
南鮮	七、〇二	五、〇九	三、二六	二、六一	一、八〇	一、〇三
中鮮	六、六〇	四、七七	三、〇九	二、七二	一、七七	一、〇〇
西鮮	五、五〇	三、九〇	二、四一	二、一四	一、四四	八六
北鮮	五、三三	三、八五	二、三九	二、二五	一、五五	七九
平均	六、三〇	四、五五	二、八九	二、六二	一、六七	九五

畓田賣買價格에對한賃貸收益利廻
가、全朝鮮平均利廻

(表 [illegible])

나、前回調査와比較 中等畓田利廻累年比較

年度	畓	田
昭和三年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다、地方別比較

(表 [illegible])

入超는減少되엇스나
輸出은顯著縮少
統制前途에一警報!

【東京】一月中旬의 我對外貿易은 前旬에休日이만흔關係上 前旬에比하야 輸出入의增加는當然한일이나 이것을 昨年一月에比하면 輸出에잇서서 九百七十九萬一千圓、輸入에잇서서 五千二百五十五萬六千圓의 各減少되엿스며 本旬의入超額은 二百七十一萬一千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四千二百七十六萬五千圓의 入超減을示하엿다 그리하야 貿易調整은 貿易統制에依하야 充分히 其實績을 擧하얏고 本旬의輸入激減도 이것을證하는것이나 問題는 輸出의減退傾向으로서 本旬까지에 實績은 正히今後에 對한 警報로 極히注目되여잇다 即昨年에잇서서 輸出貿易은 年始以來十一月中旬까지 每旬이거이 前年同期에比하야 增加되여잇섯는데 十一月下旬에 드러서는 俄然前年同期에 比하야 四百二十一萬四千圓이 減少되엿고 이것을轉機로하야 其後는每旬減少傾向을 繼續하야 今年에 入하야도 減少傾向을 繼續하고잇는대 其原因으로서는 一、對內的으로 昨年晚夏以來爲替管理强化로 原料品輸入의手當이 困難하고 前途混亂으로 貿易業者及生產業者들이 確實한 營業方針을세우지못하고 無用한 費用만支出되고 各種의事情도 겹처서 我輸出商品의 原價昂騰을 招來한것 二、對外的으로는 英米財界가沈滯傾向으로 轉向한때문에 我輸出商談이 活潑치못하야 卽生絲、綿織物、人絹織物、食料、絹織物、陶磁器及玩具等 原料輸入을不要하는輸出이 前旬에比하야本旬도 減少를 보게된것이다

朝鮮、臺灣增航
明年度에實現?

明年度遞信局海事豫算을 折衝

寸鐵

○朝鮮米實收高는 二千六百七十九萬六千九百五十石으로 新記錄인 二回豫想보다도增收 數字調査의잘못이나 事實上超大豊이나

○淸算市場立會中인 十一時三十分에 實收高를發表한것은 愼重한態度라할수업는일

○當局의 一考를促해둔다

鮮銀의米貸激增
昨年末五千九百萬圓

鮮銀의 昨年十二月末現在의米穀貸金은 五千九百三十三萬一千圓으로 昭和十二年末의 一千七百六十六萬八千圓에 比하면 四千百六十六萬八千圓의 激增이다 其中에는 九百二十三萬圓의米穀證券買入을 包含한것이다

鮮滿運輸臨總
定款變更可決

鮮滿運輸會社에서는 二十二日午前十一時半부터 府民館中講堂에서 臨時總會를開催하고 定款改正件—目的一部變更—卽業界의安定과 强化를圖키爲하야 運送取扱人의 取引保證行爲를業務中에 挿入한것을 無異議可決하고 閉會한後 이어서 朝鮮運送同業會總會를열고 宇垣問題其後의經過報告 即朝運과 妥協한데對하야 報告가잇고 午後一時半閉會하얏다

我國의物價騰貴
英米보다高率

【東京】日本銀行調査의 內外卸賣物價指數 對照表에依하면 昨年(昭和十二年)中에잇서서 日英米佛四個國의 物價水準의 推移를보면 佛國金組分切下라는 特殊事情에基한 暴騰을 除하고는 我物價騰貴率은 英米와比하야 相當히顯著하다 即 右四個國物價中의騰貴率을보면 佛 日本二割五厘 英國 米國七厘로 我國物價의內容을보면 時局을反映한 鐵鋼材料 金屬類等이 中心으로되어잇다 詳細한것은 다음과갓다

◇日英米佛四個國昨年指數

(指數는 大正三年七月 基準의 年平均指數)

	昭和十年	十一年	十二年
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式 再崩 新低價로

◇前場崩落 議會가 再開되엇스므로 議會形勢를 憂慮하야 다시賣込되어 新低價로 崩落되엇드니 即東新百六十三圓七十錢 鐘新二百七十圓丁 大新九十二圓三十錢 滿東八十三圓七十錢에떠러저서 一層惡化狀이엇고 大引은 利喰으로 下落되엇다 ◆後場例休

再開議會注目 玉整理를續行

國力遂行의 關로메-라가되는 强力國家管理案이 民間反對를 一蹴하고 議會는 再開되나 또는 豫算米了로되는나를 비롯하야 增稅案、國家總動員法案、農林調整法案、商法改正案等 國民生活에 直接影響잇는 重要法案을 審議할議會는再開되엇다 軍事費一般豫算等은無事通過되겟스나 叙上諸案에는 相當한論議가 잇슬것으로 議會形勢는 자못注目된다 政府의對支根本方針聲明을機로 議會再開까지 미리織込되어 投出한것인만큼 國威伸長의大勢를 不拘하고 突込도警戒되는터이나 議會中은 賣方이有利한境遇가만흔터이오 新規衝動을줄 好材料의出現도期키難하야 早急恢復은어려우며 週末市勢는續落不勢이엇다

今日의市勢(廿二日)

(一月十九日)
京城府阿峴町 四六六番地 崔吉溥
京城府竹添町三丁目 一〇八番地 成潤永

市場六感

株……議會는遂再開◆重要法案山積한 議會形勢는 이미自信잇는 買方의投賣를 呼하얏는데 今後의 議會市勢는 果如何?
◆戰局의長期化에 伴한 國際情勢變化豫斷不許、增稅問題等 支那는가問題로 더賣込되는나下勢買라하나 目前市勢를 刺戟할好材料도 期待안되니 市勢의 彈力性을 恢復키가 힘드러 民賣人氣가 鎭靜되고 形勢

米……期近의賣方은 實彈을 整備하엿다만큼 月末의一落을 免치못할것으로 잔뜩버티고잇더니 政府米買上發表에 依然히 度가一變하야 渡米하는것보다 買上에應하는것이 有利하다하야 當限을買退하는觀이 不無◆ 實方의策戰이 그러고보면 當限의最後一幕은 反히昂騰하기가 十常八、九◆그러데 淸算은 地塲의賣買成이多한축 떨어노코 實買成할수도업는겟◆

期米 引落
實收發表

前塲波瀾 今朝阪地는昨夕氣配의 十五丁低와는 意外로先限二十四圓四十三錢인 僅히五丁低의報를據하고 當은一圓五十四錢인 十丁低中은 一圓六十九錢인反히二丁低로先限은 三十一圓八十六錢인 一丁高로塲을始한後 阪地五十五錢으로返戾하든물에아九十四錢까지 反高하더니 朝鮮米實收增加發表로 九錢九十一錢에서 七十八錢에떠러저서 止塲하고 後塲은例休

朝鮮米實收高

二回보다 減收或은 同一程度이라던 朝鮮米 收穫高는 合計二千六百七十九萬六千九百五十石으로比第二回豫想收穫高 二千六百三十四萬六百九十六石에比하면 四十五萬六千二百五十四石(一分七厘)增加, 前年實收高一千九百四十一萬七百六十三石에比하면 七百卅八萬六千百八十七石(三割八分一厘)의增加로 十一時半 農林局으로부터 發表되엇슴으로 仁川先限止價七十八錢으로 떠러젓다

市勢는反對高
實收高增加에도

日本內地米實收高는 第二次로 北海道外 十二地方의分이 一千七百六十八萬九千七百十二石으로 第二回豫想에比하야 十九萬七千八百五十二石의 增加를示하고 … 五百七十六萬九千三百四十九石으로 第二回豫想에比하면 三十八萬九 … 의 增加를示하엿다 … 五十萬의高報를 傳하자 當地는 九十錢臺로 反騰하엿다 要하면 既히發表된地方은 二十五道府縣으로 남은地方이 二十二個所인 約半分이나되는데 남어지實收가 또한增加될지 又는 反對의現象을招來할지는몰으나 第一、二次發表의 增加比例로보다 할지라도 五、六十萬石의 增加바게아니될것이라는 臆測의 利喰賣가 이現出하므로써 反히昂騰하지안니가한商談도 업지아니하얏다

地塲依然下贅

新春 議會以後부터 一時實收高의 百萬石乃至百五十萬石의 激減說과 又는 政府米 買上을 機로하야 買占不怠하여왓섯다 問題는 實方의主張과 萬石의 發表를見하게되엿고 市勢는 一朝五十丁程度의 突高를 示한바 잇섯스나 實收發表는正反對의現象으로 第二次에 增加가 三十八萬餘石이나 됨에 따라 買方의 態度는 去益頑强하야 찾아리 買增할지언정 絕對損退는 하지안코 持久戰을繼續하여오는 그反面에 地塲은專實買成을 하고잇다 果然 今後의 商勢가 如何히 擱移될지 一考를 要하면 總實收高는 第二回豫想에 比하야 五、六十萬石增加에 不過할것으로 强軟共히 觀測하고만잇는만큼 當今瓦落은 期待키難하고 月末買上成績의 良否如何를 따라 左右될모양이나 大勢는既히 天井을演出한觀이 업지아니한축『모로리』賣가 得意가 아닐가한 商談이 有力하다

何如間 低落市勢는 買上決定을發表한後의일이엇다 賣方도 持久戰이 覺悟? (釜山)

健全「인플레」發現期待論

今後는 名實共히 新興支那政府와의 提携下에 支那의更生再建에向하야 邁進할時期를 迎키에至하야 所謂建設的 戰時經濟 即依然한 軍事行動이 繼續되는 反面 日滿支經濟의確立 其具體的 成果의早急實現을 期할 事情에잇는以上 全力을 戰鬪行爲에만 傾注할境遇와는 달러서 다만直接的인 軍需製品의 擴充에만 止치안코 各種建設資材도 必要로 하는만큼 生產力擴充의『스켈』이 一段大規模化는 必然하다 長期戰時經濟下에 如斯한 物資需要增大에 依하야 國際收支惡化라는點만 注目하고 日本經濟의前途에對하야 暗影을 豫測하는者도 잇스나 早晩이것은 解消될性質의것이다 一時的窘逼『빠란스』의 惡化로서 日本經濟力의 弱化를 指目함은早計이다 要는 飛躍前의 一步後退라할것으로 將來에對한 貿易收支의 改善을 立場으로보아 不急品에對한 消費抑制는 一段深化를 免치못하겟는만큼 統制經濟의 强化된 樣相이 顯然되나 이것도 日本經濟機構에 인플레的色彩가 一段濃厚化하는中임은 否認할수업는事實이요 特히 이것은 最近의 世界物價再向上傾向에 依하야 去益促進될 運命에 잇다 그리고 이것은 統制强化를 强要하는것가티 인플레와 統制의相剋 그均衡點發見이 不斷의問題로서 提起될것이오 從하야 百花亂漫的인플레의 全面的發現은 極力回避할것인一面 生產力擴充이란課題로보아 健全한 意味에서의 인플레進行이 必然할것이오 이에依한 好影響은 軍需關聯諸產業은勿論이오 經濟開發에 關聯잇는 各種產業으로부터 먼저本格的樣相을 具現케될것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 中限 / 先限) [illegible]

今日財界 (廿二日)

◆米 仁川期米先限 三一、七八 /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 京城正米(中等) [illegible] /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株 朝取 / 東新 / 鐘紡 / 東株 / 大阪三品 / 綿糸 [illegible]

米正 實收全貌重視

京城堅調 期米强調에伴하야 朝鮮米實收의 意外增收를示하엿다 丸仁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一等白米一二、九〇

仁川少返 本日內地實收의總計發表를 보겟는데 大勢는 豫想以上의 增加豫想이 濃厚하나 下値에는 買上申込 關係도 잇서 底値買人氣도 潛在한데다 各地淸算의 押目買人氣示現가 休日을압두고 小口이나마 買物이 出現하야 市勢는十錢의小反撥이엇다 穀良三等 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銀坊主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一〇 四等三一、九〇 多九〇 一等白米 四一二、九〇

釜山保合 政府買上値判明 待로 積極店商이 업고 塲面은 閑況 用口의 必要買가 散見되어 ... 을示하얏다 穀良三一、八〇 三、一一、六〇 一等白米一二、八三

大邱閑散 實收數字의全貌待로 賣方이모다 冷靜傍觀態度를 가지고잇슴으로 商談이不振하고 休日을앞두고 塲面은閑散이엇다 穀良 三一、二〇 三一、〇〇 一等白米一二、七〇

群山反撥 內地第三次實收發表를보기까지는 東地所持側도 積極的으로 動치안코 價位로 低價는 內地로부터 入荏가잇서서 今後의 買上結果도잇서 各地期米의 反騰을示하얏다 十錢의反騰을示하얏다 等三一、六五 四等三一、五〇 一等白米一三一〇

木浦閑散 目前에內鮮實收高發表라는 大材料를 압두고 變

株式

◆朝取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取組 ◆東京現株 ◆京城株式 (表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釜山期米 ◆大邱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期米取組 (表 [illegible])

京城物價 (廿二日)

(表 [illegible])

海外經濟 (二十一日)

(表 [illegible])

銀行券 (二十一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二六八、七八五、〇四二、六〇 / 正貨準備 一六六、九八五、六〇五、三五〇 / 保證發行 一、八〇一、四五九、二五〇

◆日本銀行券◆ 發行高 一、八〇五、七五四 / 正貨準備 八〇一、〇〇三

鋼油粕·麥粉 / 金利 / 金銀價 / 正米 / 正租 / 雜穀 / 對外爲替 / 綿絲布 / 滿洲商況 / 砂糖 / 生糸 / 人絹 / 棉花 / 綿糸

(表 [illegible])

趙俊鎬取引店 東

朝取取引員 昭和證券株式會社 京城明治町一丁目 電本代表長二二一六

東益夏 仁川

京城·證券部·期米部·仁川 吉村取引店 福